

한인뉴스



2007·12

통권 138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대한민국과 대한항공은 늘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다양한 스케줄로 가장 편리한 여행을 약속하는 대한항공
타임지 선정 최고 항공사의 특별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대한민국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잘 아는 항공사, 대한항공입니다.

구 간	편 명	출 발	도 착	요 일
자카르타 > 서 울	KE628	21:55	06:45+1	매 일
서 울 > 자카르타	KE627	15:20	20:30	매 일

구 간	편 명	출 발	도 착	요 일
덴파사르 > 서 울	KE630	00:50	08:40	화, 목, 금
덴파사르 > 서 울	KE630	03:40	11:30	월
서 울 > 덴파사르	KE629	17:20	23:30	월, 수, 목
서 울 > 덴파사르	KE629	20:10	02:20+1	일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점연락처: 021) 521-2180



To feel like a Sultan visit our website
www.sultanjakarta.com



hospitality at its royal best

Jalan Gatot Subroto, P.O.Box 3315, Jakarta 10002, Indonesia.
T: (62-21) 5703600, F: (62-21) 5733089. E-mail: hotel@sultanjakarta.com.



한인회는

‘세계속에 함께하는 한국문화’ 주제로
〈전통문화의 밤〉을 마련했습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해

가족과 함께 은은한 고국의 맛과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8일(화요일) 저녁 8시 : **일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대강당 : **장소**

20,000 루피아/1매 : **입장권 가격**

2007.12. 5 ~ 15 : **입장권 판매기간**

재인니한인회, 무궁화슈퍼, 뉴서울슈퍼, 한일마트 : **입장권 판매처**

*입장권 700매 한정입니다.

전통문화의 밤

1부. 한국전통의 전통의 소리를 찾아서

Opening

선반

살풀이

사물놀이

부채춤

판소리

태평무

산조합주

훈령무

2부. 한국의 음악 미래로 세계로 ...

여명

방황

Prince of 제주

리듬모리

창작무

환희

공연단 : S-TaRang

단장 : 김현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유쾌한 환경에서 학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 긍정적이고 열정적이 되도록 고무되고 있습니다.
-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까지 등록학생에게
발전기금 15% 할인
지금 7학년 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ISCI Complex, Jl. Ir. H. Juanda No. 2 Ciputat
Ph. (021) 7444 864 Fax. (021) 7411 222
info@jimsch.org www.jimsch.org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社로 송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시 '한인뉴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 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매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

- 자카르타 시내 : 15만 루피아/년
- 데벡,보고르,땅그랑,꼴라빠가딩,브가시 지역 : 20만 루피아/년
- 족자,발리,바뎀 등 타 주 : 25만 루피아/년

우송료 (1부/1년)

- 자카르타 시내 : 15만 루피아/년
- 데벡,보고르,땅그랑,꼴라빠가딩,브가시 지역 : 20만 루피아/년
- 족자,발리,바뎀 등 타 주 : 25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시는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Email: haninnews@naver.com

올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가졌던 다짐들의 결실을 맺었나요?
올해엔 역사상 최대의 교민들이 모여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던 기쁜 날도 있었고
60년 만의 자카르타 대홍수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다가올 내년에도 우리에게
기쁨과 시련이 교차하는 날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럴때마다 넓고 깊은 바다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다는
우리들의 온갖 오물들을 투정없이 받아들이고
인고 끝에 깨끗함을 되돌려 주는 인자함을 닮았습니다.
결국 바다의 끝은 푸른 하늘과 하나되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전합니다.

교민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배상



13



26



28



44



38



53



56



48

13 한인사회 소식
한인회, 식목행사 개최

26 강효정 원장의 건강칼럼
'개구리알'을 품은 노란 달걀
마르키샤

28 특별기획-지방한인사회를 찾아서
발리한인사회

38 Art in Jakarta
백색소음
Art Summit Indonesia 폐막공연

44 법률상식
민사소송(4)

48 윤선영의 코디제안
청바지와 셔츠

53 박화진 영화와 함께
인도네시아 그 장벽넘기
한국아이를 찾아 가세요

56 박용민의 영화 Talk Talk
Terminator 2
Judgment Day (1991)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강영한, 김재민, 박만규,

황윤홍, 김은미,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ttp://www.innekorean.or.id



한인회, 이사회 총회 개최

한인회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 열려

제인도네시아한인회는 지난 11월 14일 B.S.D.C.C 에서 한인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년도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주요활동과 결산보고, 현안이 되고 있는 안전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승은호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한인회장 단대회를 참여하지만 세계의 모든 한인회의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며 근 시일 내에 한인회와 일본민단이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인회의 발전은 이사회원들의 참여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용칠 공사는 한인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했다. 정 공사는 “최근 세관의 내국세 강화,

엄격한 통관 등 인니 정부의 세정활동 강화 등은 정부의 부정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적당히 하는 시기는 지났으며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인니 외교부와 각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교민들도 많이 참여하여 각국 외교관들과 교제의 폭을 넓혀주기를 바랐다.

이어 올해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업무보고가 있었다. 지난해에 비해 부쩍 늘어난 행사들과 규모 등을 볼때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역동적인 한인사회를 볼 수 있었다. 한인회 홈페이지 개편과 한인뉴스를 온라인 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올해 역점사업 중의 하나였다.

안전토의에서는 한인회 조직개편 및 확대, 한인회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등의 현안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한인사회 청년들의 한인회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청년사업부(가칭)’를 새롭게 신설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안전에 관해 신기엽 부회장은 한인회원 재정비, 이사진,운영위원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안전사항에 관해서 한인회는 차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좀 더 심도깊게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한인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교민들을 위한 한인회의 업무들이 교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승은호 한인회장은 “우리가 한인회 홍보위원이 되어 한인회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한인회업무를 교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한인뉴스’와 타 매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회 총회가 끝나고 2부 순서에서는 한규성(한생컨설팅/KPCI) 신임 운영위원의 사회로 이사회 총회가 있기 전 B.S.D.C.C 골프장에서 열린 한인회 이사회 골프대회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현정규 이



사가 메달리스트, 김성국 이사가 총 69타(핸디 10)로 영예의 위너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상일(UIB)사장과 김성국(Kideco Jaya Agung)사장은 각각 200달러, 100달러 씩 좋은 일에 써달라며 한인뉴스에 기부했다.



부산-인니 한상 교류협력 강화하자

- 부산상공회의소-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자매결연 서명

지난 10월 30일 부산상공회의소 8층 회장실에서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회장 승은호)와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부산과 인도네시아 경제계의 대표기관으로서 상호협력과 우호친선관계를 가일층 심화시키고 양 국가 및 도시의 발전과 교류촉진을 위한 자매결연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자매결연은 부산과 재외동포 기업인간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의 통상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측에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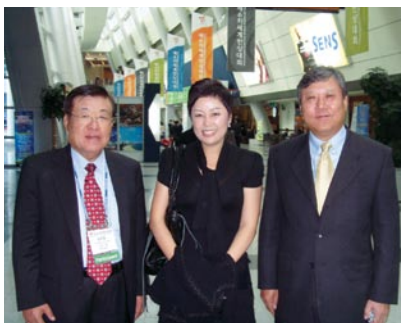
자매결연을 맺은 양 상공회의소는 이후 상호간의 교류를 빈번히 가짐과 아울러 양 지역간의 무역, 투자, 기술 교류 등 경제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게 된다. 또한 상대방 상공회의소에서 방문하는 사절단 및 실업인에 대하여 상담, 거래알선, 간담회, 산업시찰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국 및 양 지역의 산업, 경제동향,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한상대회를 찾은 이명박 대선후보와 함께
신정택 부산상의 의장(좌) 승은호 회장(우)



매일경제회장(장대한,중앙) 주최 제12차
리딩CEO 포럼에서. 김재유 한인회수석부
회장(맨좌측), 송창근 재인니상공회의소 수
석부회장(맨우측)



승은호 회장(좌)과 조규철 한인회 부회장
(우)과 함께 재인니대표적 여성기업인인
김은미 CEO Suite 대표이사



재인니한인상공인들의 한상대회 활약상

지난 10월 3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한상대회는 전 세계 35개국 1,500명, 국내인 1600명 등이 참가하여 한상대회 사상 상담실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한상대회가 진정 세계 한인동포들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동남아에 우뚝선 인도네시아 한인상공인들도 대회에 참여하여 세계 한인상공인들과의 끈끈한 교류를 강화시키로 또 국내 많은 단체와 언론으로 부터 많은 스포트 라이트를 받았다. 한상대회에 있었던 재인니한인상공인들의 활약상을 사진으로 간추려 보았다.

승은호 회장은 인니 한인거상의 대표 주자로서 한상대회 기간 개최된 <한상대회 해외진출성공사례 세미나>에 초청돼 <현지화 성공이 곧 경쟁력이다>라는 주제 강연을 부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생존경쟁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이란 말이 인니 진출 외국기업인에게 만통 들어맞는 경우도 드물것”이라며 “오늘 성공의 가장 큰 밑거름은 한국인 임직원들의 눈물겨운 현지화의 노력”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중남미, 캐나다 상공인들과 함께한 송창근
재인니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좌측2번째)



한상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서, 좌측 두번째
부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대한상의 의장,
부산상의 의장, 승은호 회장(우측 두번째)



부산상의-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자매결연
조인식. 신정택 부산상의 의장과 함께한 승
은호 회장



최태운 중남미 한상연합회장과 승은호 동
남아 한상연합회장은 중남미와 동남아의
한상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
였다.



한·인니 기술문화협력센터 착공

한국취업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한국입국전 충분한 교육을 통해 원만히 한국생활에 적응하게 되는 창구가 마련됐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11월 23일, 자카르타 짜라짜스에 위치한 총 4,500평의 대지에 ‘한-인니 기술문화협력센터(Korea-Indonesia Technical and Cultural Cooperation Center-KITCC)’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이선진 대사와 이종선

KOICA 사무소장, 에르만 수파르노 노동이주부 장관 등 200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한국국제협력센터 건립은 지난 2006년 12월 노무현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시 한-인니 양국정상간 합의된 사항으로 인니 이주노동부가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인니 노동자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사전교육센터 지원을 한국정부측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기술문화협력센터는 강의실, 강당, 어학실습실, 기숙사 및 행정실이 준비될 예정이고 한번에 300여명의 한국이주 예비인니노동자를 교육할 수 있게 된다.

이선진 대사는 양국 정상간 상호 국빈방문 이후 전략적파트너십 관계가 증대되고 경제,통상,문화, 교육 등 그 협력관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술문화협력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없이 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동이주부 장관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에르만 노동이주부 장관은 한국정부에 감사사를 표하고 현재 정부 대 정부의 해외이주노동자 법 하에서 노동이주부와 한국노동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강조했다. 또한 타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니 실업자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한국정부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인니 기술문화협력센터는 내년 11월 28일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후 KOICA는 컴퓨터, 교육기자재 등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예정이다.



한·인니 기술문화협력센터 조감도





인니 전국 7천만 그루 심기 한창. 한인회도 식목행사 개최

세계는 지금 온난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심각한 변화를 예고하는 많은 보고서들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특히 세계 환경 및 구호기구연합과 세계환경개발기구(IIED), 영국 신경제학재단(NEF)은 '아시아 태평양 연기처럼 사라질 것인가'란 보고서를 발표,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지구환경변화는 아시아가 수십 년 동안 이룬 사회, 경제성장을 허사로 만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에 UN에서는 12월 3일에서 14일 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제13차 UN환경기후변화 총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인회는 UN 환경기후변화 총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인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7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지난 11월 28일 보고르 센똔 함발랑 지역 야산에서 식목행사를 개최했다.

한인회와 대사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식목행사는 뜨거운 햇살아래 비탈진 야산을 오가며 구슬땀을 흘리는 가운데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 자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미래 환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인 만큼 우리 한인사회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환경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한-아세안 FTA 양국 공동 설명회 개최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한국관세청이 공동으로 11월 15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별관에서 ‘한-아세안 FTA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의 개회식과 FTA관세율 세션, 오후의 원산지 증명과 세관행정, 세무행정 세션으로 나누어 9시부터 16:00까지 진행되었다. 인니측에선 재무부의 관세청 및 자카르타 일선 세관 담당자와 상업부의 원산지 증명 담당관 등이 참여하였고, 우리 관세청에서는 정승환 자유무역협정 이행과장과 채경식 관세행정관이 연사로 나서 관세행정 절차와 원산지 증명서에 관해 설명했다.

한국 대사관의 이선진 대사는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동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의해 준 인니 재무부와 한국에서 온 관세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최근 인니 세관에서 대대적인 세관원 근무지 교체 등을 통한 통관행정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통관분야에 있어서 예전의 관례를 따르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업인들이 사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인니 양국 기업인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인니측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로 재무부 재정정책실의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한국측은 이미 대사관에서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인니 담당관에게 직접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하였고, 반면 인니 기업인들의 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재무부 재정정책실의 살림씨는 앞으로 인니 기업인들의 한국진출이 활성화 되면, 관련행사에 더 많은 참여가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 있는 산업연수생들이 인니 음식과 문화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 그들이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한국에 인니 음식점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고, 또 그 곳에서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인니 음악과 전통문화를 곁들인다면, 자연스럽게 양국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 곳 한인 기업인들이 그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아세안 FTA 실행여부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측의 해명이 있었는데, 정부는 7월 1일부로 재무부 장관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FTA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관세청에서 기술적인 조정 및 정리업무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12월 1일부터 세관에서 FTA협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7월 1일 이후 수입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 차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을 해줌으로써 실행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김형태 참사관은 국가간의 협정이 국내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동 행사에서 실행을 약속한 12월 1일부터는 꼭 이행될 수 있기를 당부하며, 실무제도가 준비되는 대로 환급절



차를 포함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우리 대사관에 통지해 한국기업 및 대한민국 정부에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행사에서 논의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활용, 활용시 유의사항은 한인상공회의소와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관련 관세율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한-아세안(AKFTA)관세율 : www.tarif.depkeu.go.id
아세안(AFTA)관세율 : www.us-asean.org/aftatariffs.asp
중-아세안(ACFTA)관세율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글 : 한인상공회의소 남지화 간사



땅그랑 지역 봉제협의회 모임

지난 11월 20일 땅그랑 소재 Imperial 골프장에서 땅그랑 지역 봉제 협의회(KOGA) 모임이 있었다. PT.DUMI, HILON, SHINTA WOOSUNG, HOSANA, WORLD STAR, INWOO, STARNESIA, PRIMA JAYA, INDO RAYA, SEWANG, INDO GARMENT, BINTANG BARU 등 18개 회원사 대표와 피낭시아 한인 상가 연합회 임원 등 24명이 참석해 땅그랑 지역 KOGA의 활성화를 다짐하였다.

현재 땅그랑 지역은 수우회, 땅그랑 한인 축구회, 피낭시아 한인 상가 협의회 등 여러 모임이 있는데 땅그랑 지역 KOGA를 주축으로 명실공히 땅그랑 한인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매월 3째 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가질 예정인 본 모임은 땅그랑 지역 KOGA 부회장인 이세호 (PT.SM GLOBAL 대표)사장이 임시 회장을 총무는 PT.BINTANG BARU의 김상겸 사장이 맡기로 하였다.

현재 JABOTABEK 지역에는 보골 한인회(회장 PT. KL MAS 대표 김기필)와 수까부미 한인회 (회장 PT.WOOSHIN 대표 강희범)가 있으며 회원사 간의 정보 공유와 권익 대변 등 나름대로 지역 한인회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다.



KOTRA, KOGA 합동 설명회 개최

- 인니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 지원 일환으로 인니 한국봉제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
- 회원사 86개사에서 12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
- KOGA 지역 신임 부회장 영입 (Tangerang, PT.SM GLOBAL 이세호 사장 / KARAWANG, PT.SG WICCUS 노승원 사장)

재인니 한국봉제협의회(회장 김경근)은 세계 의류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아시아 지역 봉제업계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관장:김병권)과 공동으로 '세계의류 시장 및 Off-Shore 생산 동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KOTRA는 해외투자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5월 자카르타 무역관에 '한국기업 해외투자지원센터'를 설치,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1월 27일, Hotel Mulia, Gerbera Room에서 10시부터 개최된 본 설명회는 오전 세션에는 세계 의류 시장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관련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해 온 KOTRA 뉴욕 무역관의 장용훈 부관장이 세계 의류제품의 교역동향을 설명하였고 선진국, 특히 미국 지역 빅 바이어들의 아웃 소싱 동향을 살펴본 후 인니 한국 봉제 업체들의 대응 전략을 소개하였다.

오후 세션에는, 한국 산업혁신 개발원의 김형덕 봉제 산업 전문 컨설턴트가 참석하여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Off-Shore 공장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아시아 생산기지들의 생산 여건들을 진단한 후, 인니 진출 업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8일 오전에는 심도있는 컨설

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연사들과의 'On-on-One Meeting'도 실시하였으며 PT.HANSAE는 김형덕 컨설턴트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김병권 관장은 개회사에서 '인니 봉제업체의 1/3을 차지하며, 인니 전체 봉제 수출의 40%인 연 20억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봉제업체의 위상을 생각하며 이번 설명회를 준비 하였다'라고 전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계 의류시장의 흐름 및 경쟁국 봉제업계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좀 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오후 세션 전 열린 KOGA 임시 총회에서는 김세형 사무총장은 06~07년 주요 사업 및 결산 내역을 보고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2명의 신임 부회장을 위촉하여 참석한 전 회원사로부터 추인을 받았다. KARAWANG, SUBANG, PURWAKARTA 지역에 PT. SG WICCUS의 노승원 대표와 TANGERANG 지역의 PT.SM GLOBAL의 이세호 대표가 새로이 KOGA의 발전을 위해 신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봉제협의회 회원사 86개사에서 12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세계 의류 시장의 변화와 동남아 경쟁국들의 Off-Shore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사누회, 불우학우돕기 자선경매연회 열어



재인니한국국제부인회(이하 사누회, 회장 송 제니)는 지난 11월 23일 자카르타 Arya 호텔에서 불우 학생 장학기금 마련 자선경매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사관, 한인회, 부인회를 비롯한 많은 교민들과 각국 대사 내외분, 사누회 회원 내외, 외국인들이 자리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사랑을 듬뿍 나눴다.

이날 연회에는 교민업체와 교민화가, 발리 하얏트 호텔 등에서 사랑을 담아후원한 항공숙식권, 회화작품, 미얀마 전통 인형, 한국국가대표 사인 축구공, LCD TV 등이 경매에 부쳐졌다. 사누회는 경매 수익금으로 주말에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밀알학교에 운영비를 보조할 예정이며 땅그랑에 위치한 꿈나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불우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꿈나무 초등학교는 인도네시아 어머니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불우한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곳이다.

연회 사이사이 이수은 씨의 가야금 연주, 사누회 회원들의 댄스, 기원무, 양끝봉 연주 등 한국과 타국의 전통공연들도 함께 이어져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선진 대사는 인니 부임이후 사누회와의 특별한 인연을 전하며 최근 1년사이 양국정상과 수백 명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증진되고 있는 양국관계에 있어서 사누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적극적으로 양국의 문화, 사회, 경제 등의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송 제니 사누회 회장은 '사랑을 나눈다'는 사누회의 이름에 걸맞게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재 인니 한인사회의 발전과 불우 이웃 돕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누회는 외국인 남편을 둔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국제부인회로서 1984년 결성,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누회 회장 : 송 제니

연락처 : 이 훈 081 189 9080 & Email: hoonlee@cbn.net.id

한·인니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 사업지원절차 간소화 등으로 양국간 협력사업 활성화 기대

이선진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뿌리모(Primo) 인니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 총국장은 2007. 11. 19(월) 오전 인니 외교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에 서명하였다. EDCF 기본약정 체결은 첫째, 인니 중기개발계획에 맞추어 '07~'09년 기간 동안의 EDCF 지원규모를 공약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둘째, 그간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시행약정을 포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EDCF 사업의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차관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금번 한·인니 EDCF 기본약정에 따르면 차관 규모는 '07년부터 '09년까지 총 3억불, 사업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 3억7천만불 까지 대폭 확대하여 향후 대 인니 EDCF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EDCF 지원절차는 매사업마다 ①인니측의 차관신청 ②우리측 사업심사 및 승인, ③양측간 시행약정 체결, ④차관계약서 체결로 진행되어 왔으나, 금번 기본약정의 체결로 '07~'09년 승인된 사업들에 대해 매 사업별 시행약정 체결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사업당 차관지원 절차가 약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니는 한국의 EDCF 중점 지원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87년 사업 실시 이후 우리정부 승인 기준으로 '07년 10월말 현재 12건, 2억5천6백만불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LG전자 협력회, 인도네시아 대학교(U.I)에 장학금 전달

LG전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LGEIN)의 협력사 모임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인도네시아 대학교(U.I)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카르타 근교에 위치한 Matoa G.C에서 65개사의 LG전자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년도 LGEIN 협력회 정기총회 행사 중에 전달 되었으며, 그 장학금은 2008년도 한국어학과 입학 성적 우수자 30명에게 지급 예정으로서 총 1억 2천만 루피아가 전달 되었다

이날 U.I 대학교를 대표해 참석한 Bp. JUNAIID 교무처장은 인사

말을 통해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그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계 기업에 입사하여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 하겠다” 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자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수출 기업상을 수상한 LGEIN과 협력사와의 결의를 다지는 매우 뜻 깊은 자리였는데 LGEIN 법인장(이기주 부사장)은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이 2년 연속 최우수 수출 기업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협력사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 했다”면서 수상에 따른 모든 기쁨을 협력사 임,직원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고마움의 뜻을 전하였다.



외환은행 나눔재단, 인니 학업우수 저소득층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한국 내 은행권 최초의 비영리 자선공익재단으로 2005년 12월 설립된 <외환은행 나눔재단, 이하 나눔재단>에서는 지난 11월 2일(금)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현지법인에서 나눔재단의 권택명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나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Indonesia University, Bogor Agricultural Institute, Jakarta State University, Atmajaya Catholic University 등 4개 대학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총 15,000달러를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지난해에는 24명을 선발, 총 10,560달러를 장학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나눔재단 후원사업계획은 외환은행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2007년도 총 장학금 지급액은 50,000달러 규모이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은 먼 이국나라에서 전해지는 온정에 감사에 했으며 더욱 더 학업에 매진하여 한-인니 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한몫을 담당하겠다고 전했다.

나눔재단에서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문 '환은장학금'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환은행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외환은행 장미회, 친선도모 골프대회 개최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장미회(회장 조규철)는 지난 11월 21일 에러랄다 골프장에서 41개 업체 41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장미회 골프대회를 갖고 회원사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긴밀한 친목도모의 장을 가졌다.

장미회는 외환은행 주요거래선들의 친목도모와 기업경영에 관한 현지 체험 등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6년 결성된 이후로 매년 2~3회의 정기적인 골프모임을 통해 각 회원사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



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외환은행은 신규 회원들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 장미회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급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인회, 신임 이사 및 운영위원 선임



이 준 이사



김종성 운영위원



노예범 운영위원



한규성 운영위원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12월 1일 이준(PT.CJ GLS 법인장)씨를 한인회 이사로 선임하고 김종성(PT.Bongman International 대표이사), 노예범(PT.Sam Putra Inti), 한규성(한생컨설팅/KPCI 대표이사)씨를 한인회 운영위원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이사와 운영위원들은 평소 한인사회와 한인회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후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수고하게 된다.

성 명	회 사 명
이 준 이 사	PT.CJ GLS
김종성 운영위원	PT.Bongman International
노예범 운영위원	PT.Sam Putra Inti
한규성 운영위원	한생컨설팅(KPCI)



코리아나 야구단 창단



지난 11월 24일 자가르타 스나안 제4구장에서는 자카르타 한인사회 최초로 한 야구팀의 창단되었다. 50여명의 야구단 가족과 50여명의 야구단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창단식은 소풍나온 어린이 마냥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간단히 환영사와 축사 등의 창단식 1부 순서를 마치고 난 후 신기엽 한인회의 시구와 김우재 무궁화 유통 회장의 타구가 이어졌고 야구단 A,B,C팀 간 벌이는 첫 공식 경기가 이어졌다

각 팀 선수들은 멋진 유니폼에 제법 프로의 모습을 담아 경기에 몰입했지만 삼진과 병살타, 수비 실책 등 간간

히 실수를 연발할 때 자리를 같이한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과 박수, 탄성을 이끌어내었다. 야구단 창단 첫 공식 경기 우승은 4회말 상태 투수교체와 동시에 한꺼번에 7점을 얻어낸 A팀에게 돌아갔다.

코리아나 야구단은 앞으로 전국체전에 인도네시아 교민대표로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민 2세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자체구장을 갖추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야구단 온라인 카페: <http://cafe.daum.net/koreanabbclub>



한사모가 들려주는 사랑의 메시지 from Hansamo with Love

사랑을 담은 한사모의 메시지가 반둥에서 울려 퍼졌다. 한사모(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한국문화와 예술의 반둥에 전파하고 반둥,순다지방의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지난해 세워진 단체이다.

한사모는 올해에 만도 크고 작은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하고 반둥한인사회 커뮤니티에도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등 그 열정이 남다르다. 한사모는 자체적인 1주년 기념행사를 가지고 난 후 1개월이 지난 11월 11일 반둥시내에서 한사모 회원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들의 남다른 열정과 장기를 뽐냈다.

한사모 회장 리나씨는 지난 6월 반둥 짜웁 몰에서 반둥시민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 후 한사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 한사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사모는 그들의 창의적인 예술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한국전통무용(입춤,부채춤), 순다전통 무용(자이뽕), 게임, 현대댄스 그리고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퍼포먼스 제2탄인 Bekabaret 공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장에는 한사모 회원 부모님들 외에 반둥교민, 한국 대사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현재 한사모는 그들이 마음껏 한국,인도네시아 문화예술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들의 장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한다.



From Hansamo with Love에 특별한 분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였다. 인니서부자바상공회의소 투자진흥위원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Henry Hidjaja(좌측 두번째) 씨가 그 주인공이다. 한사모의 열정에 반해 찾게 됐다는 그는 한사모가 자생적인 생명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민과 반둥시민 모두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이섭 반둥한인회장, Henry Hidjaja씨, 부인과 아들

동화 구연 대회

본교에서는 지난 11월 6일, 1,2학년을 대상으로 발표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동화구연대회를 실시하였다.

각 반에서 예선을 거쳐 반대표를 2명씩 선출하여 본선 대회를 가졌는데 저마다 독특한 내용과 열띤 목소리로 대회장 분위기를 한껏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수상자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 최우수 윤희선(1-1), 우 수 이정민 (1-2), 우 수 김지원 (1-4)
2학년 최우수-김민서 (2-3), 우 수 박기득 (2-1), 우 수 최영은 (2-4)



한글날 기념 백일장

1443년(세종 25년)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해마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백일장 행사를 가진다. 올해 각 학년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영예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1학년은 별도로 경필쓰기 대회를 가졌다.)



6-1 김진영



5-2 김귀연



4-3 정현비



3 -3 이재은



2-4 정연진



1-4 이동희

연일 뜨거운 열기속에서 진행된 학력고사

본교에서는 아동들의 학력을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보고 학력을 신장시키고 실력을 키워가기 위한 일환으로 3-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5일, 16일 이틀에 걸쳐 학력고사를 실시하였다. 배우는 기쁨, 가르치는 보람이 어우러져 학업성취도가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 번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인니 우호 관계 사진전

본교에서는 지난 10월 30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한.인니 우호 관계 사진전을 초등 건물앞에 전시하는 행사를 가져 우호의 장을 마련하였다. 사진을 관람함으로 우리 학생들과 교민들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해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이 번 사진전으로 한.인니간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ell's Diary

영어 글짓기 전시회

본교에서는 3-6학년을 대상으로 평소 수업시간인 Reading & writing 시간에 실시하였던 글쓰기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을 선별하여 학년별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 중 하나의 작품을 소개한다.

By Tae Woo Kim 6-1



Today is a happy and a sad day. I'm happy today because today Glenn Curtiss, William Baldwin, Thomas Selfridge, J.A.D Mc Curdy, and I made the Silver Dart which is an airplane. The reason I'm happy is not that, I'm happy because William, Glenn, Thomas, Curdy, and I success at the first flight of the Silver Dart. I'm sad too, because every time I success at something I always think of my lovely son, Edward that died in the year of 1881. Edward was a really kindhearted, cute, and a lovely son... It is hard for me to stop thinking about my son.

It was tiring me today, because I worked for 8 hours and a half to success the first flight of the Silver Dart. Because Glenn, Thomas, William, and Curdy are good at making airplanes, it was a little bit easier to make the Silver Dart. To make Silver Dart I needed a lot of money, because to make Silver Dart we needed many materials. It was a bit easier for me to pay money because I have a lot of money. I could get this big amount of money because my first job, telephone maker was successful. In 1876, I made the first telephone in the world and because of my invention; I could earn a lot of money. In 1877, I made a new telephone called "photo phone," which is a telephone that enabled the sound to be transmitted on a beam of light and because of this invention, I could earn a lot of money again. This is why I could pay a lot of money a bit easier than the others.

I did a lot of experiments after buying materials. I did experiments such as, making engines, making wheels, and making wings that can make the Silver Dart fly. I even did some weird experiments too, because I thought something weird will make something new and finally after a long time of working, Thomas, William, Glenn, Curdy, and I success at making the Silver Dart.

The reason I tried to make an airplane was because I wanted to help many people. I wanted many people can go anywhere they want to go. Actually there is one more reason I tried to make an airplane. It is because I promised with my son to make an airplane and make him can see that an airplane is a great invention! So that is why I tried to make an airplane.

I never thought that Silver Dart is my invention, because when I first start planning before meeting Glenn, William, Thomas, and Curdy, I got the ideas to make the Silver Dart from the invention of the Wright Brothers. I saw them making Wright

Brothers on the TV and I saw them making an airplane that was named, Kitty Hawk. After watching the TV, I decided to make a better airplane that could make many people think Bell is better than the Wright Brothers. This how I got the ideas to make the Silver Dart.

I think today is the best day of my life that I could never forget. Today is a weird day too, because I could feel the two feelings in one day; happy and sad. I had experienced many things today.

Agggghh! I'm tired today!

눈썹 위의 눈을 바라보며

11학년 3반 이성희

50여 년 전에 끊긴, 마침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갈 수 없던 땅으로 길이 이어진데요.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철도가 마침내 이어진다잖아요. 그 철길을 따라가면 먼 나라도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요.

몇 년 전인가, 트럭에다가 소를 가득 실어서 북쪽에 보낸 적이 있었죠. 그 때에 전 한국에 있지는 않았지만,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앞에서 그 소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소들이 가고 있는 그 곳을 얼마나 정신없이 바라보고 계셨을지, 저는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할아버지니까요. 성함은 이 상자 기자. 올해로 벌써 아흔 셋이세요. 할아버지는 손잡이가 반들반들한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한 채로 날마다 가까운 뒷산을 힘들게 오르곤 하셨어요. 그 산자락 한 모퉁이에다가 배추나 깻잎 같은 채소를 기르셨는데 어찌나 잘 자라는지 배추 다섯 포기만으로 김치를 담갔는데도 냉장고가 꽉 차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할아버지께서 가끔 약주를 드시고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까만색의 손바닥만한 동전 지갑에서 백 원짜리 두 개를 꺼내서 절 주셨지요. 그 때는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몸이 날라 갈 듯 가까운 슈퍼로 뛰어가서 사탕을 한 주먹 가득 사다가 할아버지 앞에 가득 쏟아놓으면 까 저 먹으라고 주시고는 할아버지는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만을 드시면서 조곤 조곤하게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한없이 늘어놓곤 하셨죠. 돌아가신 할머니의 맛나던 음식들 얘기부터 그 때는 인도네시아에 떨어져 있던 아빠의 얘기까지. 그러다가도 아무리 많은 물도 깔때기에 부으면 결국 한 곳으로 모이듯이,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의 가족인 증조할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집에 모시던 신주단지 얘기까지. 저에게 하는 말인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엄마에게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마치 혼잣말 하듯이 중얼거리셔서 저는 그저 앞에 있는 사탕들이 모두 빈 껍질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 채 앉아있었죠. 약주를 드실 때면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에 질려버린 엄마는 가끔씩 기계적인 대답만 하실 뿐. 할아버지는 제가다 못 알아들은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지긋이 저를 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무심코 올려다 본 기다란 할아버지의 눈썹 위에는 따뜻한 부산에 살면서도 항상 눈이 쌓여 있었어요. 박완서 작가가 쓴 ‘그 여자네 집’의 여주인공 곱단이는 눈 내리는 날에는 속눈썹 위에 눈이 없힐 만큼 속눈썹이 길었다고 하죠. 그만큼이나 할아버지의 눈썹도 길었어요. 그러다 가끔 할아버지 눈썹 위의 눈이 녹

아 눈을 타고 흘러내려도 난 알아채지 못했었지요. 사탕의 단 맛도 느껴지기 어려울 만큼 짧은 순간마다 마주치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 마냥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세월 속에서 점점 깊어져만 가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읽기에는 아직 어리기만 했습니다.

몇 년 후 인도네시아로 옮겨와 초등학교 삼학년 을 다니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8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속에 어디선가 들었던 황해도 가 있다는 사실과 할아버지 집과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종이쪽지의 사연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정해진 날에 제사상을 차려야만 했던 눈물 젖은 지방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매일 산에 오르시는 그 일상들도 할아버지의 어릴 적에 본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지요. 작은 종이쪽지 위에 적힌 할아버지의 그리움이 꽃히던 그 곳은 ...

수십 년 전에 황해도 어느 곳에서 끝없이 손 흔들며 “위험하니 아가들 데리고 너희 먼저 가라, 난 밭 지켜야 한다. 어여 가.” 라고 외치는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연신 뒤를 돌아보는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뒷모습도. 할아버지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증조할아버지의 그대로를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철도를 만들 때도 열을 받으면 늘어나는 철의 신축성을 고려해서 간격을 조금씩 띄워 설치한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져 있는 철로가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적처럼 설레는 일 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이어질까요?

난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많아요. 이대로 우리나라의 묻혀진 과거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늘어날수록 굽아가고 깊어가는 상처들은 어떻게 하나요. 비록 남쪽과 북쪽의 마음이 연결된 통로가 소롯길처럼 좁아도 길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을 테니까.

기차길이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철길뿐만이 아니라 바닷길이나 다른 찾길들도 함께 열렸으면 좋겠어요. 혼잣말로 그리움을 중얼거리던 할아버지가 그 길을 뛰시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기쁨을 외치게 되는 날이 올른 오기를. 그 뒤에 탄탄하게 펼쳐진 통일의 길을 따라 대립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머나먼 곳까지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기쁨의 함성이 닿게 되기를... 그 옛날처럼 처음부터 하나일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이기에.

‘개구리알’을 품은 노란 달걀

마르키샤

‘개구리알’이라는 별칭으로 익숙한 과일 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슨 오렌지 종류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얇은 듯 딱딱한 껍질을 열고 나면 그 안에 개구리 알과 같은 알맹이가 들어 있는 과일 입니다. 껍질로만 알맹이를 보호 하기는 부족한 듯 폭신한 숨과 같은 식물성 보호막이 다시 알맹이로 의 접근을 막아 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겹의 하얗고 얇은 막으로 자기 알을 소중히 감싸 듯이 알맹이를 정성스럽게 둘러 싸고 있습니다. 가히 “개구리 알”이라는 별칭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렁출렁 대며 금방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알맹이를 담고 있는 그 과일 이름은 마르키샤(markisa) 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와서 두리안, 망가, 망기스, 살라 등의 다양한 열대 과일을 접해보았지만 이 마르키샤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시 한번 타국에 왔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이국적인 과일의 으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르키샤가 담고 있는 어색함이 사라지고 친근해지기 시작하면 어느덧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이 더 이상 타국이 아닌 제2의 고향쯤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과일이 되는 듯 합니다.

마르키샤의 학명은 *Passiflora edulis*라고 부르며,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Magnoliophyta) 쌍자엽식물강(Magnoliopsida) 밀피기목(Malpighiales) 시계꽃과(Passifloraceae)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과물시계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는 maracuja라고 하며, 하와이에서는 lilikoi, 남아프리카에서는 guavadilla, 자메이카에서는 sweet cup, 미국에서는 passionfruit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식물명실도고>에 의하면 서번련(西番蓮), 서양국(西洋菊), 전심연(轉心蓮), 옥예화(玉蕊花)라고 불리며, <사천중약지>에서는 전지연(轉枝蓮)이라고 불린다 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시계초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 보듯이 과물시계초 또는 시계초라고 부르는 것은 그 꽃이 마치 시계처럼 생긴 데서 유래하는데, 그 꽃잎과 꽃술의 모양이 시계의 문자 판처럼 생긴데다가, 시침과 초침처럼 생긴 꽃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위치를 바뀌어가며 마치 시간의 변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가져다 주는 꽃이라고 합니다. 마르키샤는 브라질에서 유래되었으며, 남아메리카로 전해진 후 스페인, 지중해 여러 나라들,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보통 2종류의 마르키샤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Passiflora edulis* 라고 불리는 보라색 마르키샤로 해발 1200m이상에서 잘 자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해발 0~800m에서 잘 자라는 노랑색 마르키샤로 *Passiflora flavicarp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Passiflora edulis라고 불리는 보라색 마르키샤의 경우 북부 수마트라와 남부 술라웨시에 해발 800~1500m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Passiflora flavicarva와 Passiflora lingularis 그리고 Passiflora quadrangularis 등의 4종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마르키샤는 대체로 섭씨 15~20도의 기온에서 잘 자라며, 90~95%의 습도, 해발 1000~1500m의 축축한 땅에서 많이 자라는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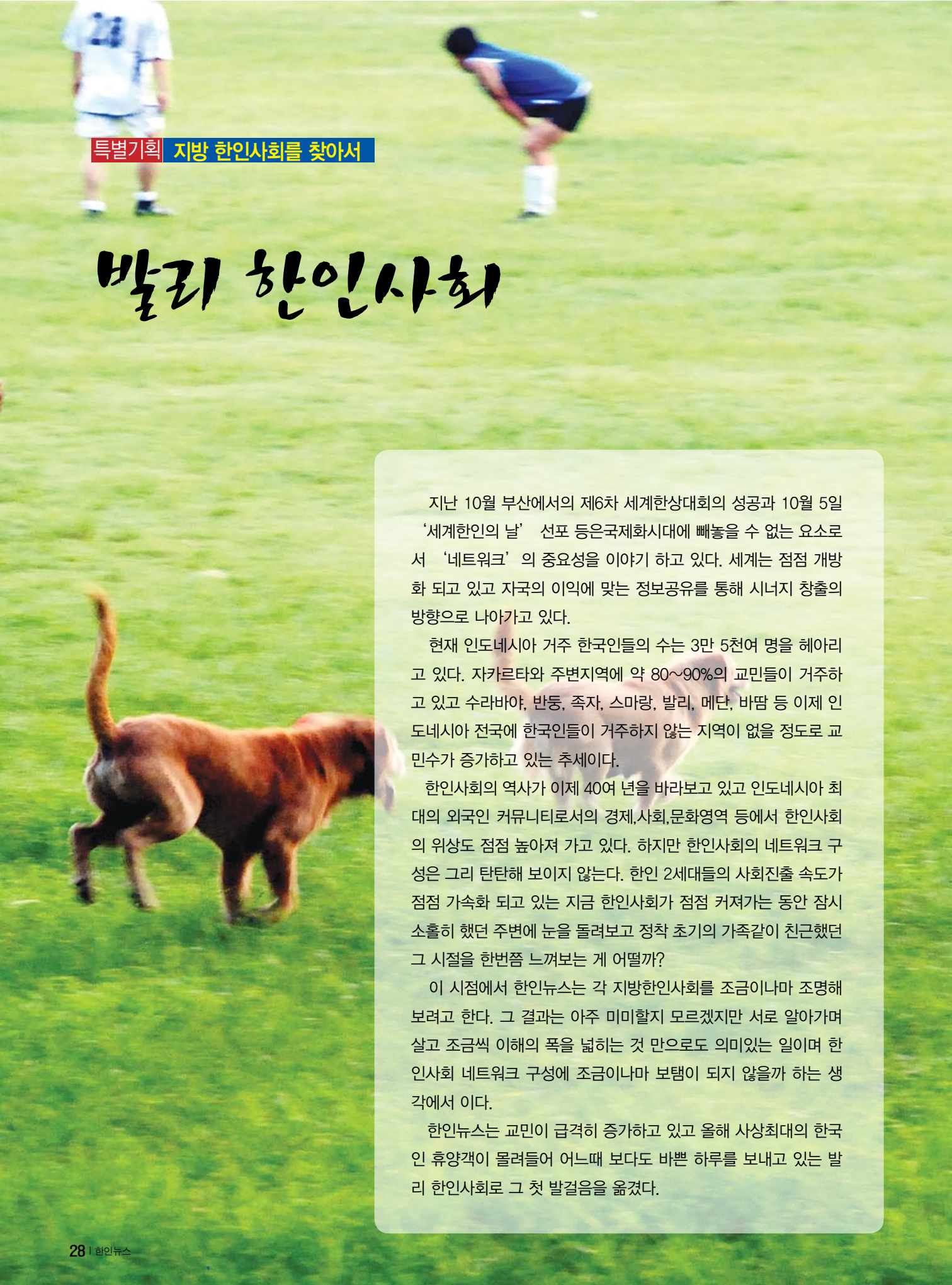
마르키샤는 군데 군데 검은 반점이 박힌 듯한 오렌지빛을 띠는 노란 색깔의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껍질에 약간은 지저분해 보이는 반점들이 있어 이 과일의 맛이 과연 어떻게 의문을 던져 주는 형상이어서 좀 뚝고 시큼한 맛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알맹이를 입에 넣는 순간, 역시 생김새는 그냥 생김새일 뿐 겉을 보고 그 속을 미루어 짐작하는 오류를 범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달고 아삭아삭 고소한 그 맛…… 그 순간 자연이 주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마르키샤를 양 손으로 잡고 가운데를 누르면서 별려주면 얇고 조금 단단한 껍질이 열리면서 하얀 속살이 보입니다. 뭔가 깨질 것을 염려하는 듯 푹신푹신했던 이불 같은 속살, 그 안에는 마치 연못에서 개구리 알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다 모여든 것 같은 형상을 한 마르키샤의 진주가 나타납니다. 그 맛은 달고 고소하며, 알알이 하나씩 씹힐 때마다 푹푹 터지는 듯한 그 느낌이 다른 과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마르키샤만의 고소함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마르키샤를 살펴보면 성미(性味)는 한(寒), 무독(無毒)하고 신고감(辛苦甘)하며, 歸經(귀경)으로는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厥음간경(足厥陰肝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이 됩니다. 고미(苦味)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인하여 인하여 설(泄)하니, 청열(淸熱)하고 해열(解熱)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신미(辛味)로 인하여 개(開)하니 울체(鬱滯)된 기를 풀어 주며, 감미(甘味)로 인하여 중궁(中宮)의 기를 도우니 비위(脾胃)의 중화(中和)작용에 기여한다 하겠습니다. 한랭(寒冷)한 기운으로 고미와 함께 열(熱)을 사(瀉)하는 기능이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천중약지>에 의하면 풍열과 그로 인한 두통 또한 제반의 두통의 증상이 있을 때 “시계꽃의 잎, 국화, 뽕나무잎, 꿀풀, 연잎을 물로 달

여서 먹는다.”는 구절이 있어 국화와 함께 마르키샤의 꽃이 체내 상부에 있는 열을 끄는데 묘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르키샤가 심한 질병을 앓고 나서 기력을 회복해 주는 과일로 유효하며, 항간에서는 출산 후 수유기에 젖이 부족한 경우에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A(700IU)와 비타민C(30mg)가 풍부하여 혈액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과일일 뿐 아니라, 칼슘, 인, 철분, 칼륨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간식으로 먹기에도 아주 훌륭한 과일이 됩니다. 또한 근육을 진정시켜주고 식욕을 억제해 주며, 입술이 창백해지는 빈혈의 제 증상을 완화시켜 주며, 두훈과 두통이 있을 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마르키샤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에 따르면 마르키샤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이 진정제나 신경안정제로 사용하기에 유효하다고 하며, 서인도 제도에 있는 마테리아에서는 위암 치료를 위한 생약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입시에는 껍질을 만져 봐서 움푹 움푹 들어가지 않는 조금은 밝은 오렌지빛의 노란색의 마르키샤가 좋습니다. 마르키샤는 껍질을 까서 후르륵 마시듯이 그냥 먹는 것도 좋으며, 다른 과일과 함께 섞어서 주스를 해 먹거나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스쿼시, 젤리 등에 얹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특별기획 지방 한인사회를 찾아서

발리 한인사회

지난 10월 부산에서의 제6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과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선포 등은국제화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세계는 점점 개방화 되고 있고 자국의 이익에 맞는 정보공유를 통해 시너지 창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들의 수는 3만 5천여 명을 헤아리고 있다. 자카르타와 주변지역에 약 80~90%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수라바야, 반둥, 족자, 스마랑, 발리, 메단, 바탐 등 이제 인도네시아 전국에 한국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교민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인사회의 역사가 이제 40여 년을 바라보고 있고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로서의 경제, 사회, 문화영역 등에서 한인사회의 위상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네트워크 구성은 그리 탄탄해 보이지 않는다. 한인 2세대들의 사회진출 속도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지금 한인사회가 점점 커져가는 동안 잠시 소홀히 했던 주변에 눈을 돌려보고 정착 초기의 가족같이 친근했던 그 시절을 한번쯤 느껴보는 게 어떨까?

이 시점에서 한인뉴스는 각 지방한인사회를 조금이나마 조명해 보려고 한다. 그 결과는 아주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알아가며 살고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 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며 한인사회 네트워크 구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다.

한인뉴스는 교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사상최대의 한국인 휴양객이 몰려들어 어느때 보다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발리 한인사회로 그 첫 발걸음을 옮겼다.

발리에 도착한 그 다음날 한인뉴스는 김동수 발리한인회장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발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형의 제안으로 1989년 2월 발리에 오게 됐다는 김동수 회장은 5대, 6대 발리한인회장을 역임한 적 있으며 현재 서울가든(식당) 운영과 무역업하고 있다. 한인뉴스는 12월 초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3차 UN환경기후변화 총회’의 한국측 준비로 분주해 하고 있는 김 회장의 입으로 부터 발리한인사회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김 동 수 발리한인회장

발리 한인사회는 어떤가?

발리 한인사회는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는 작은 사회이다. 교민들의 대부분이 차량으로 30분 안쪽 거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대단하다. 많은 업소가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경쟁업체들도 서로 믿음과 신뢰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발리한인사회는 최근 2년 사이 교민수가 250여명에서 500여명으로 2배정도 증가하고 계속해서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80개 정도의 한인기업들이 있으며 관광업이 주를 이루며 (80~90%) 그 외 생산업,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내년 한인업체수의 대거 증가가 예상된다.

발리 교민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좋은 기후와 깨끗한 공기, 양호한 교통환경, 상대적으로 안정된 치안, 경찰청에서 특별히 외국인을 관리 보호한 다는 점들이 이곳으로 교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재 발리는 IMF 이후 연무사건, 1.2차 발리테러사건, 쓰나미 등의 한파를 겪어내고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으며 이전부터 리조트, 관광사업에 관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시선들을



김동수 한인회장(가운데), 김효찬 행정총무(왼쪽), 김철 수석총무(오른쪽)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 새로 정착하는 한국인들은 리조트, 빌라, 대형호텔, 쇼핑센터 기획 등 관광업 관련 교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교육에 열성적인 부모들의 권유로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올해 14~15만 명으로 예상되는 한국인 휴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휴양을 오는 연령층도 다양하다. 발리는 역시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이며 특히 이들 중 발리의 풍경, 문화, 친절에 매료되어 체류를 연장하거나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행사에서 내놓은 패키지 상품으로 발리를 찾는 노년층에게는 좀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 발리가 휴양지가 아닌 관광지라는 인식 때문이다.

발리한인회 업무 소개

발리 한인회에서는 여권연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사관의 요청에 의해 영사업무를 협력하고 있다. 발리에 영사과를 설치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한인회가 교민들과 여행객들의 요구사항을 담당영사에게 연락하여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권한은 없다. 주로 한국인의 여권분실 시 신속히 재발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팩스를 통해 여행증명서 신속 발급이 여권분실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 외 공식적인 신원확인이 필요할 경우 대사관 영사의 직접확인만이 가능해 신속한 처리를 못하는 게 아쉬운 점이다. 발리를 찾는 한국여행객이 매년 급증하여 올해 말 14~15만 명 정도 예상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처리가 어려워 진다. 대사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점이다.

발리한인회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발리한인사회는 한인회관 건립 및 한국학교 건립을 가장 큰 계획으로 삼고있다. 한인회관 건립을 통해 교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친목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인교회내에 있는 한국학교도 한인회관으로 이전하여 우리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한국학교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사관과 인도네시아한인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많은 도



인터뷰 중인 김동수 한인회장

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늘어나는 교민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한인회가 컨설팅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법률안내, 교민들의 비자대행, 신규사업자의 인허가 처리 등을 처리해 갈 예정이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한인회와 공관을 엮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인 발리가 일반적인 인도네시아와 다른 점은?

발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힌두교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으며 발리 곳곳에 신들이 살아있음을 믿는 신들이 살고 있는 섬이다. 발리에선 특이하

게 야자수 정도 높이인 지상 16미터 이상 높이의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자연보호 차원 이유도 있지만 야자수를 밟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힌두교 신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힌두협회의 제안으로 건축에 관한 발리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집 안팎 곳곳에서는 예를 드리는 곳(Tempat Sembahyang)을 쉽게 볼 수 있다. 발리는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항상 예를 차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인생에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혼상제를 보존해 나가는 것으로 발리 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있다.

발리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참고될 사항이 있다면?

불교와 힌두교가 섞여 이뤄내는 발리의 힌두교는 독특한 문화를 지닌 힌두교이다. 또한 발리에선 성인식(Potong Gigi), 결혼식, 장례식 등 생활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장례식을 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저승을 떠돌게 된다는 믿음으로 장례식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성대히 치른다. 이러한 생활의 관습이 곧 발리전통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보면 된다. 발리에 거주하거나 잠시 방문을 하는 여행객들이 마음으로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또한 발리에 체류하면서 삶 속에 녹아 숨쉬고 있는 발리인 특유의 예술감각을 이해해야 한다. 타 지역에 비해 여유와 낭만, 가족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우리 생활도 비슷해 진다. 발리의 예술적 감수성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붓(Ubud)지역을 추천한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예술가들이 발리 예술가들과 정서를 교감하는 곳이다. 1주일 정도 머물면서 발리춤, 문화, 예술에 대해 배워본다면 발리의 진정한 매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발리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해 힘든 점은?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한국어교육이다. 4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한국학교가 한인교회 내에 있지만 작은 규모로서 교육기자재 및 교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의 봉사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한국어 전문교사 파견이 요구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발리 방문 시 권양숙 여사가 한국학교를 방문, 지속적으로 교재 보내주시고 있

발리한인회

전화: (0361) 286-248

팩스: (0361) 270-185

이메일: balihein@yahoo.co.kr

주소: Jl. By Pass Ngurah Rai No.259 Sanur-Bali

회장: 김동수(서울가든) Tel. 0361-744-3552

수석부회장: 이 성남(부가레스토랑) Tel. 081-138-0058

부회장: 윤여각(VIP TOUR) Tel. 081-2469-8161

수석총무: 김철(프라자발리) Tel. 0361-741-9958

행정총무: 김효찬(Bale Cable Com) Tel. 0813-3822-6874

어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 체류하다 보니 비자의 경우 특히 준비 기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발급 시스템으로 인해 비자 연장 시 최소 40~50일 정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무리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1가족(4인기준) 1년 연장비용은 1500만 루피아 정도 이다.

발리 교민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점은?

대체적으로 발리 교민들은 예절이 바르지만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각 사업장에서 한국식으로 강요하는 예를 볼 수 있다.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 문화, 역사, 예절 등을 존중하느냐에 따라 그곳 국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서로 신뢰가 쌓이게 된다.

발리에서 한인사회가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이 높을 텐데 문화행사에 관한 견해와 계획하고 있는 문화행사가 있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이다 보니 발리 곳곳에서 많은 문화 공연행사들이 개최된다. 발리한인회에도 발리의 각 시도에서 문화행사 참여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1989년도 발리와 제주도 사이의 자매결연이 체결된 이후 매년 3~4월 발리 축제에 약 50~60여 명의 제주도 문화공연단이 참여하여 공연한다. 전주 소리축제 팀도 지난해 발리 방문 후 매년 1회 발리 소리팀과 발리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발리 교민들은 문화공연 참여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연단에게 맞춘 한식과 잠자리 제공, 열정적인 공연참여 등 한국문화홍보를 위해 애쓰는 공연단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한인뉴스를 통해 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00명 이상 발리를 찾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사관에서 관광청과 경찰청등과 협조를 통해서 안전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이 이곳 교민들을 바라보는 발리인들의 시선이 더욱 좋게 바뀌었다. 대사관에 바라는 점은 발리에 권한 있는 명예영사직을 부탁 드리고 싶다. 또한 재인니한인회와 자카르타한국국제

학교가 발리 교민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길 바라고 가능하다면 한글교재의 협찬을 받고 싶다. 각 한인사회의 상호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



발리는

발리인의 약 90%가 믿는 힌두다마라고 불리는 종교는 힌두교에 불교의 요소들이 결합된 힌두교의 일종이며 발리힌두교라고도 불린다. 발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의 육체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어 일생 동안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식을 치른다.

발리인들은 산을 신들의 고향이라 믿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출생에서 결혼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발리에서 의식행사를 보기란 어렵지 않다. 특히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은 발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으로서 발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성인식은 청소년기에 욕망의 상징인 송곳니를 자르는 의식이며, 결혼의식은 종종 거짓으로 예비 신랑 신부가 도망가는 약혼식후에 행해진다.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장례식은 윤회를 믿고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믿음 때문에 밝고 성대하게 죽은 자를 축복해 주는 의식이다. 우주를 모방한 탑 가운데 시신을 위이고 영혼을 데려간다고 믿는 사코파거스라고 하는 관에 화장해서 바다에 재를 뿌린다.

세계에서 발리만큼 종교적인 색채가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곳도 많지 않다. 발리에 머문다면 아름답고 화려한 축제와 의식들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교민들의 사랑과 봉사로 가꾸어가는 발리한국학교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세계전체가 가까워진 지금이지만 외국에 살면서 자녀를 둔 교민들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라면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일 것이다. 2000년도,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작은 발리사회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리한인교회 부설로 당시 전복만 목사 사택에 자그마한 발리유치원 개원하고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발리 주정부로부터 교육법인인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한국어와 외국어를 가르치고 열성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올해 8월 발리한국학교 교사를 개관했다.

“매주 토요일뿐이지만 발리교민 자녀들의 80% 정도가 한국학교를 다닐 정도로 학부모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학교를 개설하고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윤경희 이사장의 말이다. 윤경희 이사장은 아직은 낙후지인 발리의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 올바른 문화와 전통을 전한 공로로 올해 윤명숙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현재 한국학교(교장 김영길)에는 초등부에서 중등부까지 40여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외 미술, 음악, 체육 교육을 실시하며 체육대회, 연말 발표회 등 공동체의식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학교는 정부에서 영상자료, 교재 등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지만 효율적인 한글교육을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컴퓨터, 악기, 서적, 다양한 영상물 등 기본적인 학습 기자재들이 많이 부족하며,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단어 설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이다. 한 교사는 “교민수가 적다 보니 학생수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있어 광범위한 학생분포에 맞게 적절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과,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와 눈, 낙엽, 단풍 등 두 나라의 계절차이로 인해 다른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한다. 하지만 “시청각 교육이지만 한국 전통과 풍습에 관해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문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국학교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가져달라고 전한다.

윤경희 이사장은 한국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계적 휴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발리와 함께 20년 역사의 교민사회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으로서의 자아와 정체성을 찾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교민들도 뿌리를 내리고 생활의 터전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적으로 강력한 교민사회가 예상되고 한글 교육에 열정을 가진 후원자가 나타나 보다 더 체계적이고 멋진 한국학교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중한 것일 겁니다”.

이성남 수석부회장



현지 타 지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다 98년 도부터 발리에서 여행업을 시작했다는 이성남 발리한인회수석부회장. 근래 들어 새로운 한인업체들이 많이 늘고 지난해부터 10만을 돌파한 발리 방문 한국손님의 증가로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여행 중 손님이 인과상을 당했을 때 한국인 운영 메디컬 센터가 없어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지 병원에 의존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한국인 운영 병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수석부회장은 한국 손님들로 기쁘지만 사고 확률이 높아져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해 모든 교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발리 한인회와 여행업 관계자들이 형제처럼 일심 단결하여 문제발생 시 신속히 상호 연락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수석부회장은 “발리는 좁고 행동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리교민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발리한인사회의 특색입니다” 라며 한인회는 단지 대외적인 체계일 뿐이며 모든 교민들이 형제처럼 단결해서 상생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한다.

발리생활 친절도우미 김효찬 총무



생소한 발리 한인사회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받고 싶거나 발리에서 궁지에 빠졌다면 현재 발리생활 6년차의 김효찬 총무(Bali Cable Com 대표이사)에게 연락하자. 아직 미혼인 그는 한인회의 총무로서 대내외 한인사회 홍보와 가이드 역할을 맡고 있다. 매일 10건 이상 발리한인사회 관련 민원처리와 발리교민들의 비자, 여권에 관한 사항들을 대사관과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교민들은 비자,여권 발급 및 연장을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였지만 급한상황일 경우 한인회에서 의뢰하면 우편발송으로 긴급처리할 수 있다.

김효찬 총무는 또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명예영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리상 신속한 영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발리지역에서 교민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민 관련 재난,사건사고발생시 긴급대처 및 소속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지대응 등 교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몸만 조금 피곤할 뿐’

여행업, 즐거운 여행 위해 최상 서비스 제공

국제적인 휴양지 발리. 최근 발리 폭탄 테러 이후 주춤했던 여행객들이 거의 예전 상태를 회복하고 있으며 한국인 방문객 수도 올해 사상 최대인 15만 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인 경영 여행사가 40여 업체에 달하고 교민사회 비중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리 1세대들은 발리에 정착, 가이드부터 시작해 거의 맨손으로 회사를 키워 오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그들의 근면성과 철저한 서비스 정신은 발리 여행업계에서도 특출나다. 발리한인들의 뛰어난 창의성은 곳곳의 여행 명소들을 개발, 그 대표적인 예로 대만 성인 남자 10%가 이미 찾았고 한국인 관광객의 70~80%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인꼬 발리’는 한인 여행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데 일조하고 있다.

발리한인여행협회 회장인 장영수 씨(Penjor Tour 대표이사)는 “손님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가짐 위해 ‘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행업 종사 교민들은 여행업을 천직으로 받아들인다. 빈번한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손님 발이 묶일 때, 항공사 스케줄의 변동에 의해 밤낮이 따로 없는 그들은 그저 ‘몸이 피곤할 뿐’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여행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발리여행이 되도록 발리의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장영수 씨는 성수기만을 노리고 과행적으로 운행하는 저가 항공사들은 승객이 적은 경우 운행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 발리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정부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유람선 타고, 래프팅 체험, 해산물 꼭 먹어보길”

유람선을 타고 1시간 정도 바다에 나가 스노클링과 반잠수함을 통해 발리만의 여유롭게 노니는 물고기들과 함께 깨끗한 바다속을 즐길 수 있으며, 섬에서 원주민들과의 독특한 생활을 체험을 할 수 있다. 래프팅은 성년 급류를 느끼며 여행의 짜릿한 모험속을 탐험할 수 있으며 타잔 영화속에서나 볼수 있는 밀림속 계곡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현재 세 곳의 래프팅 장소가 교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말린 야자수를 숯으로 만들어 구워내는 독특한 짐바란 해산물 음식은 타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맛을 전한다.

또한 발리 각 지역의 특색 - 꾸따지역(쇼핑몰, 바, 가짜 명품들에 유이), 누사두아(고급 리조트, 골프장, 부유한 여행객들이 많이 찾음), 해발 1717미터의 긴따마니 산(서늘함) - 을 숙지해서 여행 일정을 잡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발리를 발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발리여행업협회 회장 장영수

발리 여행 시 체크하세요

1. 인니는 100% 종교인이다. 가끔 테러에 관련하여 이슬람에 관한 언급을 할 때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종교에 관해 장단점을 언급하지 말고 그대신 타 종교를 느끼려고 노력하자.
2. 종교적 에티켓으로서 귀엽다고 어린이의 머리에 손을 올리는 행위 삼가.
3. 꾸따 지역은 서울의 이태원과 비슷하다. 외국인이 많다 보니 여권분실 사고가 가끔 있다. 발리에는 대사관과 영사과가 없기 때문에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권은 되도록이면 호텔 Safety Box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분실 했다면 한인회에 즉시 보고하여 여권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여행업

성명	회사명	전화번호
김윤기	PT.PESONA TAMAN KENCANA	0361-7441525
오기봉	PT.PD TOUR	0361-763-845
장영수	PT.PENJOR TOUR	0361-727800
유기아	PT.P.B.B	0361-288999
장재호	PT.APA TOUR	0361-241341
김우동	TNB	0361-7735801
추교홍	PT.KORUS	0361-7447200
강서동	PT.MARIN TOUR	0361-224010
윤여각	VIP TOUR	0361-762090
한현섭	PT.SUDINA BALI	0361-7442121
장기석	PT.KAYA TOUR	
조승미	PT.DongWha tour	
이창우	PT.MATAHARI KORIN	0361-757474
권현미	CAKRAWALA TOUR	0361-727-242
주진국	B.J.C TOUR	0361-284-365
조성호	PT.M TOUR	0361-725-800
소정민	SUNDA DUTA	
박석봉	SATYA TOUR	0361-283305
한성곤	RED CAP	
김정례	스피릿투어	0361-234825
김진철	Varia Tour	0361-8604977
방세진	Korea Travel	0361-756899

서비스업, 요식업

양정훈	PT.INT	0361-720999
김철민	PT.HAN STAR	0361-729099
이기수	BALI ZIGI.COM	0361-7454229
장재홍	시나르무띠아라 (진주가게)	0361-462061
이 실	선주얼리(CV,ADI CAKAR MANGGALA)진주가게	0361-761539
정찬호	발리데와파	0361-285501
이근록	CLEAN/GREEN	0361-289070
김진달	환타지agara오케	0361-282828
김재호	뜨게아궁	0361-298643
김태경	공향(폴로)	0361-759368
김재홍	PT.BALI CHIPPENDALE FURNITURE	0361-812570
한정국	드림랜드빌라	0361-708199
김영호	익투스	0361-815-310
김효찬	PT.Bali Cable Com	0361-705266
김봉신	PT.B.T.I	0361-284362
최원준	머르타나디 (가구점)	
임현성	대한항공지점장	0361-244988
정동일	Airang Hotel	0363-41795
김진홍	PT. A One	
김동수	Seoul Garden(식당)	0361-768323
강호철	hanil rest (식당)	0361-727250
정정청	Seoul Garden(부두굴식당)	0362-29220
김향미	청기와(식당)	0361-287503
최경희	꼬끼레스토랑,아이시스마사지(식당)	0361-287503
조혁모	Ajengan Korean FOOD(식당)	0361-263793
양미숙	Grill House Restaurant(식당)	0361-752755
이성남	BUGA RESTAURANT(식당)	0361-286909
윤성식	PT.DEDO RAYA UTAMA	0361-720452
이동우	INKO MASSAG,BEVERLY HILLS	0361-7892000
안여곤	MASSO MASSAGE	0361-725475
김기선	PT.G.B.I 발론기구	0361-704333
장유진	LAPAMA레프팅	0361-288507
홍은기	OCEAN BLUE BALI villa	0361-776700



짙막한 발리정보

Tempat Sembahyang (기도장소)

발리 어디를 가든 작은 제단형식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집 밖에는 돌로 쌓거나 목재를 이용하여 탑 형식으로 제단을 만들고 집안 내에는 작은 제단 (pelangkiran)을 만들어 벽에 붙여놓고 매일 신선한 꽃(cenang sari)과 제물을 힌두의 신 브라만신(Brahman)이나 지신에게 바치며 가정의 평화를 빈다. 제단이 놓이는 장소는 집 주인이 정하기도 하고 신의 힘을 느끼는 이가 정해주기도 한다. 발리인들은 이 제단을 매우 신성시 여긴다. 바로 이런 생활에서부터 발리는 신의 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발리를 찾는 여행객들은 발리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이러한 제단을 만져보거나 인접지역에 들어가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발리인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힌두신 조각상과 교차로

발리의 교통상황이나 도로환경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발리의 길을 가다 보면 도로 저 끝에 거대한 규모의 힌두 조각상들을 볼 수 있다. 조각상에 다다르면 조각상 주위로 원형도로가 나오고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뻗어나간다. 발리인들에게 그들의 일상과 인생의 여로를 헤매지 않게 안내해주는 멋진 안내자가 있는 것이다.



“

지속적인 자아개발
노력이야 말로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



20여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닌 발리 한인사회. 그 발리 한인사회와 처음부터 동고동락 하며 역사를 몸으로 증명해 내고 발리 교민 어느 누구로부터든 산 증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에게 듣는 생생한 발리 이야기에는 과거 타향살이 교민들의 애절한 애환과 더불어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멋진 장밋빛 미래도 내포하고 있다. 발리의 산 증인 이기수 씨와 김동우 씨가 그 주인공들이다.

발리교민들의 사랑방 이기수 씨

한 가정에서 한 달에 쌀을 370킬로그램을 먹을 수 있을까? 힌트, 대가족도 아니며 식당도 아니다. 이 집을 찾지 않은 발리 교민이 없을 정도로 친절환 그(?)가 있다. 발리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발리 한인 1세대이며 산 증인인 이기수씨(51세, Pro Inflatable boat 대표이사)이다. 발리해경 인명구조대의 부대장 역임, 발리프로축구협회 기술고문, 산악인 허영호씨와 함께 동부이리안자야 카스텐스 봉 등반, 스카이다이빙 선수, 열기구 조종수, 발리테러 시 인명확인작업, 수많은 인명구조 등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힘든 많은 경험을 한 그는 발리한인사회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 경찰, 군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재 이기수씨는 스피드보트, 플라잉 보트, 래프팅 보트 등 레저스포츠 보트와 해경 보트 등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제작, 납품하여 인도네시아를 거의 석권하고 있다. 하지만 이기수씨에게도 1989년 발리정착 초창기에 명문도 없이 관공서에 자주 불러 다녔던 기억이 있다. 이후 발리군경과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착안

하고 보트를 설계, 판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경, 정부 쪽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낙천적인 성격이라 이 직업을 택하게 됐다고 겸손해 하는 그는 기존의 플라잉보트에 항공역학을 도입,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조, 기존 3~5미터의 불안정 상승을 안정적으로 15미터 이상 상승하는 플라잉보트를 재개발하여 발리 내 해양스포츠에서 그의 보트가 없이는 레저를 즐길 수 없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자동차 롤스로이즈 영업정신을 모방, 가격은 비싸지만 그의 보트를 사면 평생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전략으로 내년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 동남아시아 시장 석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발리 1세대로서 그는 1세대들의 끈끈한 정과 요즘 신세대들의 강한 개성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게 발리한인사회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발리의 환경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 질 수 있지만 교민들이 지속적인 자아개발을 통해 유익한 삶을 영위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그러한 노력이야 말로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한다. 이기수씨는 만약 수산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에게 인니 해경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니 해경과의 끈끈한 관계를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발리인의 인식을 바꾼 이동우 씨

2000년도에 모 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발리 직원들의 시위가 있었다. 시위의 목적은 월급인상이나 안정적인 고용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예배활동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 시위의 원인이었다. 매일 직원들의 수 차례 예배할

“

너희들이 반절만
한국식 서비스를 따라오면
내가 반절 따라가겠다

”

발리이야기

동으로 인해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된 것이 회사측이 예배활동을 자제시킨 이유이다.

“너희들이 반절만 한국식 서비스를 따라오면 내가 반절 따라가겠다. 관광객 위주로 우리가 움직여 줘야지 관광객이 우리를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닌가?”

직원들과의 끊임없는 회의와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으로 회사는 지금 발리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명소로 발돋움 하였다. 발리직원들의 인식을 180도로 바꾸어낸 주인공이 바로 이동우 비버리힐즈, 인꼬발리 대표이사이다.

미국에서 힙합티셔츠 사업을 하다 LA 폭동 이후 발리에 정착한 그는 ‘인꼬발리’를 설립, 한국, 태국, 중국식 마사지의 핵심을 엮어 ‘황실마사지’라는 새로운 마사지 법을 개발하여 그간 퇴폐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발리 마사지 문화에 중지부를 찍고 정통성 있는 발리마사지 문화를 개척해 냈다. 전체고객 중 40% 만이 한국인 고객이고 화교, 유럽, 일본, 러시아인 등 외국인 고객이 두터운 인꼬발리는 ‘정말 마사지를 잘하는 곳’으로 이미 발리여행객의 필수코스로 인식되어 있다.

어려움을 그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인꼬발리의 성공 이후 고급빌라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저가빌라와 고가빌라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발리 빌라시장에서 자체적인 로비건물과 소규모 세미나 장소 등 보통 빌라단지와의 고품격 차별화로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화려한 실내, 한국의 3개 채널을 볼 수 있는 TV, 주방에 준비한 한국 녹그릇 등 고객을 위한 섬세한 배려들이 올 8월 그랜드 오픈 이후 예약 폭주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발리한인회 5.6대 부회장, 7대 회장을 역임한 그는 발리교민사회에도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다. 한인회장

역임 시 교민들의 후원금과 개인 찬조금으로 한인회 사무실을 개소한 그는 이제는 한인회관 건설이 숙원사업이라고 말한다. “유동인구를 포함한다면 발리는 자카르타 다음으로 한인수가 많은 곳입니다. 한인회관은 교민뿐만 아니라 한국인 여행객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학교를 한인회관으로 이전하고 한국 전통물 전시, 영사업무를 활성화 시킨다면 발리의 한인사회 위상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후기〉

인도네시아 같은 하늘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만으로도 우리 교민들은 대단한 인연으로 엮여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지방 한인사회를 돌며 교민들의 사는 이야기, 작은 바램들을 입체적으로 멋지게 담아보겠다던 애초의 생각은 숨가쁘게 달려가는 11월의 행사로 인해 잡힌 2박3일이라는 짧은 취재 여정이어서 일까 엉성한 모자이크로 책임감 없이 대충 칠해버린 허술한 결과에 마냥 부끄러워진다.

사람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말처럼 2세대에 대한 교육이 그들의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였고 어떻게 하면 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고 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공통된 관심사였다.

개인적으로 발리 교민들로 부터 내 어렸을 적 시골 냄새나는 푸근함을 느꼈고 또한 정으로 똬똘 뭉친 그들의 모습에서 가까운 미래 강력한 발리한인사회의 강인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발리취재의 모든 일정과 경비를 지원해 준 발리한인회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 준비로 바쁜 회사 일정을 잠시 접어두고 선뜻 동행에 나서 멋진 사진까지 담아내고 또한 많은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던 홍진기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한인뉴스 편집위원 김영민

백색소음

Art Summit Indonesia 폐막공연

2007년 11월 30일, 20시 30분, Taman Ismail Marjuki 극장 무대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문화부가 주최하는 국제 현대예술 공연축제인 Art Summit Indonesia(이하 ASI) 2007 행사가 자카르타 곳곳에서 개최됐다.

“다양성에 동참을”(To Join the Diversity)주제로 11월 한달동안 개최된 ASI는 11개국 15개 공연단이 참여, Wayang Listrik이라는 인도네시아 전자 인형극 공연을 시작으로 자카르타 시내 TIM, Kesenian, Goethe Institute등에서 공연되었다. 한국팀 대표로 참여한 안애순 무용단(A-Soon Dance Company)의 〈백색소음(White Noise)〉은 15개 공연단 중 예술성과 창의성이 가장 뛰어난다는 호평을 받고 11.29~30 양일간 Taman Ismail Marzuki(TIM)의 Graha Bakti Budya 극장에서 ASI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폐막작의 영예를 누렸다.

무대 위 20여 명의 무희들이 각자 자기의 어지러운 길들을 사력을 다해 뛰어간다. 행여나 부딪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해보지만 그저 우환일 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답고 치밀하게 계획된 동선위를 마치 절대자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끝으로 공연은 막을 내린다. 그리고 공연장을 꽉 매운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어두워진 공연장을 감동과 환희의 분위기로 흠뻑 적신다.

다문화가 공존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대의 예술이라면 왠지 이해하기 힘든 그 무엇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익숙한 몸짓이나 음악,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전형적인 의미들과 거리가 있는 당대의 예술은 개인성이라는 무기를 통해 춤과 음악, 미술, 영상, 조명 등을 하나의 소재로 이용하고 자기 중심의 의미부여를 통해 표현해 내는 순수 창작이기에 더욱 그러한 난해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의 마지막 밤은 몸을 아끼지 않은 무희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환희의 감동으로 승화되었다.

‘우리가 편리한 삶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들에 너무 익숙해져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낸다’는 메시지가 이 시대의 사회, 정치에 비유하여 당대의 예술(Contemporary Art)로서 전달하고 싶었다고 하는 안애순(안애순 무용단 감독) 씨는 이기의 문명의 소리를





<백색소음>으로 규정짓는다. “좀더 확대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역사의 과정속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싸이렌 소리가 들리죠?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나라, 민족, 우리라는 공동체의 카테고리를 통해 개인서를 침해하고 획일성으로 몰아가는 사회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와 전통속에서 그러한 모순들이 더 많이 쌓여가는 것 같구요”

<백색소음>의 이러한 주제의식은 무대 구석구석 숨어있는 CCTV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희의 행위가 대형화면을 통해 관객에게 노출되고 있고, 아크릴 판 뒤의 빨간옷을 입은 강자로 보이는 무희의 몸짓에 따라 그 반대편의 대다수 무희들이 움직이는 모습, 무서운 인상의 조련사와 개의 출연 등 전체 9장으로 나뉘어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공연 곳곳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하지만 <백색소음>은 무대의 소음에 묻혀 자칫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아픔을 인간적이면서 따뜻한 몸짓으로 그려내는 것 또한 놓치지 않았다.

안애순 무용단은 <백색소음> 공연 중 인도네시아와 무용수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양국의 무용수 20여 명이 조화를 이루며 속도감 있게 함께 펼친 공연의 마지막 장면은 타국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중한 의미를 남겼다.

“무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죠.
이 무대를 좀 더 넓게 렌즈를 열어 바라볼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한인사회의 각별한 관심

ASI에 한국팀 최초 폐막공연이 된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고국에서 예쁜 선남선녀들이 온다는 반가운 소식에 한인사회는 그들의 인도네시아 일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두 차례 공연 시 공연장을 꽉꽉 매워주는 기본적인 매너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라는 뜻으로 한인회와 대사관 공연단이 함께 하는 작은 자리도 마련되었다.



안애순(국민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감독은 ‘옥스퍼드 무용사전’에도 그의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용가중의 한사람이다.

안 감독은 “교민사회가 고국에 대한 향수로 인해 전통공연에 대한 애착이 있겠지만 현대예술도 일상의 한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 주기를 바란다” 고 조심스럽게 전한다.

안 감독의 주요 작품으로는 Just-Feedback, Seven+1, 원-순환의 사계, On Time 등이 있다.





다양한 문화전시로 풍성했던 11월의 자카르타

지난 11월 자카르타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향기로 넘쳐났다. 자카르타 곳곳에서는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그림에서 서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됐다. 재인니한인미술협회의 <제8회 정기展, The 2nd EAST-EAST>, 한마음교회 신자들의 <다름, 그 아름다움展>, <제3회 자필묵연展>이 그것이다.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보이는 교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제8회 한인미술협회展 - The 2nd EAST-EAST

1999년 창립 후 매년 꾸준히 정기전을 해오고 있는 한인미술협회(회장 이은수)는 올해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다. 다문화권과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3국의 17인의 작가들이 함께 국제전 형식의 전시회를 가진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의 예술을 통해 각자의 다양성과 동질성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고 이은수 회장은 말한다. 각 개인과 국가의 예술세계가 뚜렷이 드러날 만큼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던 작품들은 방문한 사람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풍부한 예술세계의 깊이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넓다란 6개의 전시공간에 총 100여 개의 작품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1주일간의 전시기간 동안 꾸준히 교민들과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제3회 자필묵연전

제3회 자필묵연전시회 <좋은인연 좋은열매>가 지난 11월2일 코리아센터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인재 손인식 선생이 지도하고 있는 17명의 회원들이 출품한 40여 점의 작품들은 지난 1~2회 전시회에 비해 한결 성숙해진 작품들이라는 평을 받았다. 정용칠 공사, 신기엽 한인회 부회장 등 교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전시회에



다름, 그 아름다움

그림이야기 첫 번째 전시회를 마치고

서울에서라면 첫 눈이 오기도 하고 칼칼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종종거리는 11월, 그러나 온통 푸르름으로 변함없는 일상을 계속하는 열대의 이 곳 지금.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찬란한 전시잔치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검은 색으로 성장을 한 우리는 소풍 나가는 어린 아이같이 들뜨고 상기된 마음으로 오프닝을 기다렸다. 연극과도 같은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파티, 음악이 흘렀고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의 이름, 또 너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마흔이 넘어 아이들과의 지루한 씨름으로 그날이 그날 같은 열대의 나날, 그 중에서 하루를 물감냄새, 테레핀 냄새 속에 오롯이 붙들고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다운 수요일들이 2년 반의 세월을 지난 오늘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우리들의 그림은 막연한 꿈으로 끝나지 않고 예쁜 틀을 입고 조명을 받으며 꽃단장을 하고, 각자 그린 이들의 생각을 대신 말해 주고 있다. 어떤 이는 꿈속에 그려보는 예쁜 집 속의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어떤 이는 머릿속에 스치는 찰나의 생각을 그리고, 어떤 이는 졸업하는 딸의 모습을 하얀 카라꽃 송이 속에 그리고, 어떤 이는 뽀짝으로 갔던 소풍의 순간을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으리라. 적어도 무언가에 열심을 내었던 모습으로 훗날 엄마를 추억할 수 있겠지? 세월이 지난 어느 때쯤, 세상 아무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된 것과 몰두 할 수 있었던 수요일들에 감사 하게 되겠지? 그리하여 육십일세 되는 생일날(남편과 나의 생일은 공교롭게도 3일 차이를 두고 아름다운 11월에 들어있다) 그렇게 모인 자식과도 같은 그림들을 보며, 좋은 사람들과 남편이 연주해주는 색소폰 소리와 딸의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소박한 꿈을 꾸어 본다. 꿈은 꾸는 자의 몫이고 삼만 번쯤 되뇌고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그림이 우리에게 세상과의 소통이 되며, 내가 좋아하는 산울림의 노래처럼 청량하기를 기대해 본다. 부족함을 질타하는 충고도 있었지만, 다름 가운데 아름다웠다는 격려가 더 많았다고 자부해 본다. 부족하면 어떤가? 우리에게겐 소중한 아름다운 생의 한 순간인 것을! 이제 또 다시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캔버스 앞에 앉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아름다운 그림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 이야기 회원 김 경애

는 바쁜 회사일정을 쪼개 잠시 들른 직장인부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주변 이웃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만큼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가정주부, 직장인, 학교선생님 등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조금씩 시간을 내어 필묵과 함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속에서 전시된 작품의 값어치 이상의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이야기

누가: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시: 매주 수요일 12:30~15:00

장소: 한마음 교회

지도: 흥 영리 (JIKS 미술과)

문의: 총무 변 희경(0816-190-5366)

기차여행

손은희 작가

정말 오랜만의 기차여행이었다. 처음타보는 고속전차(KTX)에 가족과 함께 몸을 싣고 강원도 포항의 산언덕배기에 위치한 한 동대를 찾아가는 시간... 기차여행도 하고 학교구경도 할 심산이었다. 고속전차는 미련없이 어느덧 북적이는 도심을 외면하고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별판을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었고 차창에는 카메라렌즈에 잡히는 아름다운 그림처럼 정겨운 시골숲과 아늑한 산야가 비치고 있었다. 나뭇잎들은 달뜬 심정으로 오색으로 단풍들 날을 기다리듯 등성등성 화장을 서두르고 있었고 시야가 막힘없이 너른 가을들판에는 황금빛 벼들이 농부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선사할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다. 르바란 휴가 기간 어렵게 시간을 쪼개어 새벽전차를 타고 그 그림같은 자연의 수채화속을 내지르는 기분이란 얼마나 상큼하고 흥분분하고 운치있던지... 나는 차창에 언뜻 언뜻 비치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일상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들판과 산야에 던져버리고 가자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다. 때로는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 때문에 압사되어 버릴 듯한 시간도 많았다.

40대가 되면서 어느덧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자리들이 하나 둘 내 시간을 요구하고 있었다. 엄마라는 자리, 아내라는 자리, 작가라는 자리, 거기에 몇 개월전부터 시작한 방송진행자의 자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자리, 또 새로 시작할 작은 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내는 일까지..... 크고 작은 자리들은 그 나름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수레처럼 움직이기에 일상의 바퀴가 멈추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매일 해야할 일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헉헉거리며 1년동안 살아왔던 것 같다. 어디 나뿐이라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은 누구나 똑같다.

배탈이 가끔 나면 가는 아파트 옆의 종합병원내의 내과 의사가 있다. 갈때마다 늘 꼳꼳한 자세로 아픈 곳을 신중히 묻고 아주 진지하게 진찰을 하고 정말 세심히 약처방전을 설명해주는 그야말로 성실이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이고 사는 듯한 의사이다. 하얀 가운을 입고 그렇게 환자 한명 한명에게 열과 성을 다하는 덕분에 그 의사에게는 환자가 넘쳐난다. 그래서 진료가 시작되는 아침 8시부터 다른 의사가 거의 퇴근한 밤 시간까지 그 의사의 병실앞에는 늘 환자들로 붐빈다. 어느날 밤 10시에 급체하여 병원에 갔을때도 그는 그 시간까지 환자를 받고 있었고 그 밤시간에도 자세하나 흠여짐없는 그 모습으로 진료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수입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성실한 의사'라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하루하루가 얼마나 육체적으로는 고되고 힘든 하루 하루이겠는가! 생각하면 안쓰러움도 든다. 의사가 되기도 힘들었겠지만 그 의사라는 자리를 멋지게 지켜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과정인 것이다.

어느날인가는 사업을 하는 아는 사람의 사무실을 찾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약 2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돈을 잘 버는 여사장님이다. 직원들은 설새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기위해 서류를 찾고 컴퓨터화판을 두드리고 전화로 설명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느라 분주하기 이틀데 없었고 사장인 그녀 또한 계속 올려대는 전화를 받느라 나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몇 번을 중단했어야 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자 남편을 둔 아내이면서 사업을 하는 사장이라는 그 자리가 멋지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가 멋진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또 얼마나 지치고 힘들때가 많겠는가! 생각하면 콧등이 시큰해진다. 그녀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있기까지도 힘든과정이었겠지만 그 자리를 지켜가기위해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된 일상을 치러내기 위해 힘쓰고 있었는가! 우리는 모두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 매일매일 전투를 치루고 있는 셈인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자리가 높고 멋질수록 그를 우러러보고 그 자리에 자기도 오르기 위해 고분 분투한다. 그런데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높고 멋진 자리에 오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높은 위치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가 얻은 그 자리를 멋지게 지켜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사장이라는 자리, 고위공무원이라는 자리, 대사업가라는 자리, 대스타의 자리 등등 남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인생의 반평생 아니 한평생을 다 바쳐 노력하고서도 정작 그 자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지켜가지 못해 추락하는 별동별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기에 높은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들이는 피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높은 자리를 멋지게 지켜가기 위해 책임을 다해가는 일상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높은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몸부림치느라 내게 이미 주어진 귀한 자리에 때로 너무 많은 번거움을 남기고 살때가 많다. 그러다 그 멋지게 이루어놓은 아름다운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때에야 그 이미 주어진 그 자리를 소홀히 했음을 후회한다.

1년동안 나 또한 나름대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으로 종종거리며 살아왔지만 많은 번거움을 남겼고 때로는 지쳐서 소홀히 한적이 많다. 그러기에 이 기차여행처럼 모든 것을 훌쩍 떠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일상의 고된 몸부림들마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때 그로인해 우리의 가족이 더 나아가 직장 사회와 국가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주부가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갈 때 화목한 가정은 이루어지고 아내가 그 자리를 건실히 지켜갈 때 남편은 사회에 나가 어깨를 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아름다운 가정의 울타리를 희생으로 지켜나가는 주부가 있기에 남편과 자녀는 세상의 골목을 방황하지 않고 그 울타리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 가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의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기위해 고된 일상을 최선을 다할 때 많은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치가가 자기자리를 멋지게 지켜갈 때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가와 직장인들이 열심히 자기자리를 지켜갈 때 회사와 나라경제가 살게 된다. 큼 탈진될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 힘들고 고된 일상이 결코 헛된 몸부림이 아닌 아름다운 투쟁이라는 것을.

시간을 내어 지친 삶에 잠시 쉼표를 찍으며 그 엄연한 사실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되뇌다 보면 어느덧 매일의 아름다운 투쟁에 다시한번 두 팔 건어부치고 싸워볼 마음이 새록새록 피어나리라. 내가 오늘 이렇게 기차 여행을 통해 압사해버릴듯 나를 짓누르던 일상의 짐들을 자연속에 부려놓고 스스로를 다독인 후 새로운 의욕을 얻듯 말이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산언덕으로 향하자 산자락을 둘러싼 싱싱하게 푸른 바다가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우리를 반기고 있다. 저편에 유유히 떠있는 뱃전에서 울리는 뱃고동소리를 들으며 가는 바닷가를 거니는 한쌍의 연인의 모습이 한편의 고적한 풍경화다. 그 아름다운 풍경화속에서 방금 포말을 일으키며 달려온 파도가 썰물되어 잔 물결을 일으키며 물러가고 있다. 버스차창으로 바라보는 그 풍경만으로도 가슴이 바다처럼 시원해진다. 냇을 잃고 그 그림을 바라보다보니 어느덧 삶의 무게가 썰물따라 사라져버리고 선선한 바닷바람에 새로운 의욕이 불어오고 있다.

“그래! 또 씩씩하게 사는 거다!” 바닷바람이 내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 건네는 것 같다.

민사소송(4)

변호사·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32. 증인의 의무

32.1. 법정출두의 의무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법원으로부터 법정 출두명령을 받으면 증인에게 출두 의무가 발생한다. 1차 출두명령을 어기면 출두명령서 송달비를 배상해야하며, 2차 출두명령을 어기면 송달비와 소송 당사자(원고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3차 출두 명령은 경찰을 통하여 강제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귀찮지만 법정 출두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재판부에서 정한 일자에 맞춰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1. 선서의 의무

증언을 하기 전에 재판부 앞에서 증인의 종교에 따라 선서한다. 이슬람 신자는 코란을 두고, 크리스천은 성경을 두고, 불교신자는 부처상을 두고 재판장을 향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증인이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부에게 서약 후 증언을 취한다.

32.2. 증언의 의무

법정에 출두하여 선서를 한 증인은 증언의 의무가 있다. 증인이 선서 후 증언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증인을 구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구치비는 소송 당사자 부담이 된다. 소송당사자에게 소송 당사자와 재판부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의 질문의 내용이 사건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질문을 제지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를 경유하여 간접 질문을 허용한다.

33. 재판부는 소송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은 증인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증인은 거의 전부 원고 혹은 피고가 요청한 증인들이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생각할 때 사건 조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출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4. 증언의 증거능력

서증(글자로 쓰여진 증거물)은 강제 증거 능력이 있으므로 재판부는 서증을 의무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여야 하나 증인의 증언은 재판부에게 강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증언을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물로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다.

35. 최종변론

입증 절차가 종료되면 원고와 피고는 각각 지금까지의 모든 주장, 청구, 반박, 변론, 입증을 총망라하여 원고와 피고가 최종 변론서를 동시에 재판부에 제출한다. 재판부는 원고 및 피고가 각각 제출한 최종 변론서를 검

토하고, 실정법, 관습법, 판례 및 법학 이론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법의 확실성이 있고 소송당사자 및 사회에 유익한 판결문을 내린다.

36. 판결문의 구성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의 구성 요소는 판결문 서두, 소송 당사자의 인적사항, 판결 근거 및 원고의 청구 사항에 대한 답변이다.

36.1. 판결문 서두

모든 판결문에는 서두에 반드시 “Demi Keadilan berdasarkan KeTuhanan Yang Maha Esa” 이라는 말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의 서두에 이 말이 쓰여 있지 않으면 판결문의 집행 효력이 없다. 직역하면, “유일하고 위대하신 신성에 근거한 공정을 위하여”, 의역하면 “신의 이름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정도로 해석이 된다. 판결문 서두에 신성에 근거한 공정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판사는 신의 대리인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36.2. 소송당사자의 인적 사항

원고 및 피고의 성명, 나이, 주소, 변호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36.3. 판결 근거

먼저 사건 자체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을 간략 명료하게 열거하고 다음에 판결의 법적인 근거를 설명한다.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변론을 듣고 재판부는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판결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정확하고 이유가 설명되는 객관적인 판결을 내린 근거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판결 근거가 애매모호한 판결문은 파기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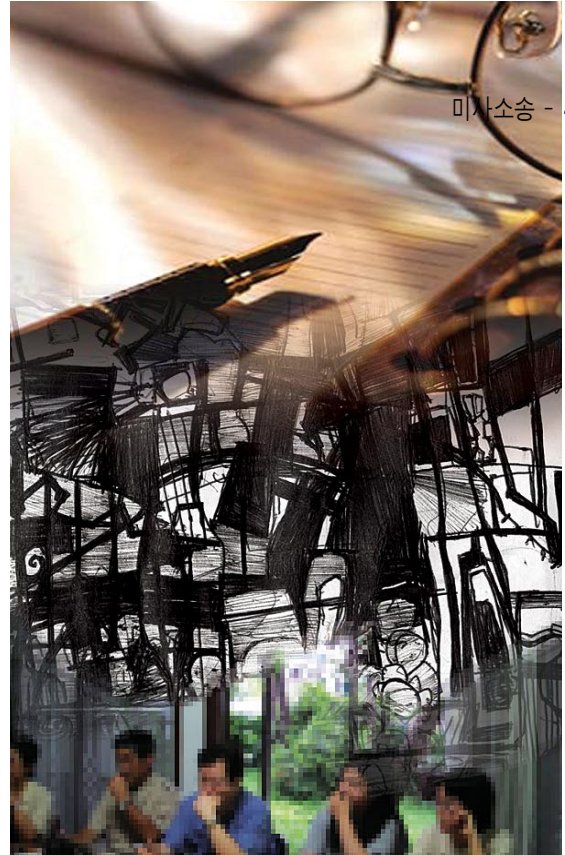
36.4. 원고가 청구한 사항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의 변론을 듣고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두꺼운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의 답변이 쓰여 있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를 기각한다, 청구한 사항 전체를 인용한다, 일부만 인용한다,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선언한다, 계약이 적법함을 선언한다,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음을 선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얼마를 지불하라, 판결문 내용을 집행할 때까지 매일 얼마의 벌금을 지불하라, 소송비를 누가 부담하라, 등 원고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쓰여 있다.

37. 항소(Banding)

37.1. 항소등록 시한

1심의 판결문에 불복하는 소송 당사자가 1심의 판결문에 대하



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 1심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소송당사자가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법정에 출두하였으면 판결문이 낭독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송당사자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으면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다. 1심의 판결문에 대하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등록이 있으면 1심의 판결문은 효력을 상실하나, 반대로, 14일 이내에 항소등록이 없으면 1심의 판결문이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확정판결문이 되며 승소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37.2. 항소장

항소는 사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이므로 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소장의 내용이나 청구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조를 바꾸면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논조변경은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37.3. 항소등록 및 항소장 송달

항소등록을 받은 지방법원은 상대 소송당사자에게 항소등록 사실을 송달하며, 항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장 사본을 상대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한다. 피항소자는 카운터 항소장 제출 의무는 없으나 카운터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우려되므로 통상 대부분의 피항소자는 카운터 항소장을 내고 있다. 카운터 항소장 제출 시한은 없다. 그러나 항소장이 지방법원에 접수되면 소송당사자들에게 14일간의 소송서류 열람 기간을 통보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지방법원은 피항소자의 카운터 항소장 없이 하더라도 소송 파일 전체를 상급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소송서류 열람기간이나 열람기간이 끝나는 대로 피항 소자는 카운터 항소장을 제출하여 카운터 항소장이 소송 파일과 함께 상급법원으로 보내지게 함이 바람직하다.

37.4. 항소 재판

항소 재판은 지방법원처럼 판사 3인의 재판부를 구성하고(특수한 경우에는 1인 판사) 전체 사항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린다. 지방법원의 원심을 깨고 항소자 승소를 내릴 수 있고 원심을 확인하는 항소자 패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항소 재판의 처리 시한은 대법원의 지침은 6개월로 되어 있으나 통상 6개월이 되기 전에 내려지고 있다.

37.5. 항소재판 판결문 송달

항소재판에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재출이나 송달은 처음 판결문을 내린 지방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항소재판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을 통하여 소송당사자들에게 송달된다.

38. 파기청구(Kasasi)

대법원을 제외한 최종심급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파기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고등법원의 판결문, 상업법원의 판결문, 노동법원의 판결문, 세무법원의 판결문 등은 파기청구의 대상이 된다.

38.1. 파기청구 등록 시한

최종심급의 판결문에 불복하는 소송 당사자가 최종심급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파기청구를 등록할 수 있는 시한은 최종심급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소송당사자가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법정에 출두하였으면 판결문이 낭독된 날로부터 14일이 기산되고 소송당사자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으면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기산 된다. 최종심급의 판결문에 대하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기청구등록이 있으면 최종심급의 판결문은 효력을 상실하나(상업법원의 파산선고 판결문은 예외), 반대로, 14일 이내에 파기청구 등록이 없으면 최종심급의 판결문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확정판결문이 되며 승소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38.2. 파기청구장 제출 의무 및 제출 시한

항소자는 항소장 제출 의무가 없으나 파기청구자는 파기청구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기청구장을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4일 이내에 파기청구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파기청구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파기청구자가 파기청구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지방법원은 파기청구 등록 사실과 파기청구장 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한다. 피청구자는 카운터 청구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파기청구장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카운터 파기청구장

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청구자가 카운터 청구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통상 거의 모든 피청구자가 카운터 청구장을 제출하여 파기청구자에게 대항하고 있다.

38.3. 파기청구 재판부 구성

파기청구장과 카운터 파기청구장을 접수한 관할지방법원은 소송파일을 대법원으로 이첩하고 대법원에 접수된 소송파일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지명한다. 재판부는 팀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며 대법원장은 팀을 지명할 뿐이다. 공익이나 다수자의 이익에 관련된 민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에게 우선 처리를 청원할 수 있으나 우선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38.4. 파기청구 재판

파기청구 재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다. 하급법원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시켰는지 여부를 재판한다. 재판을 하는 방법은 소송파일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을 하나 씩 방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대법관, 제2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순서로 소송파일을 각각 조사 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판결을 내린다.

38.5. 파기청구 판결문 송달

대법원은 파기청구 판결문을 관할 지방법원에 내려 보내고 관할 지방법원은 다시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송달을 의뢰하여 소송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파기청구 판결문을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대법원의 판결문 일자로부터 소송당사자가 송달을 받는 일자까지 통산 시차가 관료주의 때문에 여러 주일이 걸리고 있다. 판결문을 빨리 필요로 하는 소송당사자는 본인 혹은 변호사를 통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의 시간을 절약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38.6. 파기청구 판결문의 효력

파기청구 판결문은 확정판결문이며 소송당사자를 구속하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38.6.1. 구속력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구속한다. 구속하다는 뜻은 구속력이 생겼으므로 소송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38.6.2. 집행력

판결의 집행력은 파기청구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행 판결에 승소한 소송당사자는 패소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에 “를 들면 승소한 채권자는 패소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기청구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파기청구 판결문이라고 해서 모든 파기청구 판결문이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부의 동거 명령 같은 이행판결은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38.6.3. 형성력

판결의 형성력은 확정판결이 기존의 법률 상태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형성력은 소송당사자 뿐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파산을 선고한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는 파산이 선고되어 금치산자가 되는 법률상태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39. 판결문의 집행

승소가 확정판결문으로 확정됐다고 해서 승소자가 패소자에 대하여 막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승소자는 먼저 확정판결문을 첨부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승소자의 집행허가 신청을 접수한 지방법원은 패소자에게 지방법원으로 출두할 것을 명하여 8일 이내에 확정판결문의 내용 이행을 명한다. 패소자가 지방법원의 출두 명령에 불응하거나 8일 이내에 확정판결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패소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명령서를 발급하고 동산 부동산의 순서로 집행압류를 하고 공매한다. 판결문 집행 허가는 판사의 직권으로 하지 못 하며 반드시 승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에서 허가한다.

40. 패소자 구금 제도

소송에는 승소하였으나 패소자가 재산을 다 빼돌려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비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신 구금 제도가 있다. 채무액 10억 Rupiah 이상인 경우에 승소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은 패소자의 인신 구금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방법원의 패소자 인신 구속 명령은 검사가 집행한다.

41. 민사 소송 시 유념해야할 사항들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는 불법행위 혹은 계약위반이며 대부분은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지와 상환 능력이다. 상환 능력이 있으나 상환 의지가 약한 채무자에게 소송 청구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승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권리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본적인 소송 경비 부담 능력이 필요하며, 상대의 재산 상태 파악도 필요하다. 승소하였으나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에 상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 부정부패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정한 판결문이 의혹이 가는 판결문보다 훨씬 많으며, 법리상으로 정당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협상해서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가 승소보다 바람직하다. 소송은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하는 최후의 방법이나 소송을 하면 누구나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소송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패소하려고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소송의 목적은 승소일 수 밖에 없다.

12월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죠? 1년 중 가장 피곤하기도 바쁘기도 한 달임은 틀림없지만 대신 좋은 이 옷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세 번의 코디 제안을 했는데, 적당히 활용하셔서 좀더 상큼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바지는 단 한 벌이라도 안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평복(?)이란 말인데요, 응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겠죠? 편안하고, 잘만 입으면 5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청바지에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까요? 민 무늬 단색셔츠 말고 조금은 덜 평범해 보이게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실크 리본 블라우스

좀 강한 색이죠? 블랙 진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리본 색상 때문입니다. 옷을 입을 때엔 어느 정도의 통일감은 꽤 중요하거든요. 상의가 좀 넉넉한 편이라 하의는 좀 타이트 하게,, 리본에 질 세라 두 줄의 뽕뽕 목걸이로 좀 더 세련되게~

민소매 비즈 블라우스

투명한 비즈가 앞뒤 전체에,,, 하나하나 손으로 달은 것인데,, 그 수고에 일단 박수 한번 보내구요. 착용 했을 때의 느낌은요,, 밑에서 살짝 잡아당기는 듯한, 그러면서 안정적인 기분,, 그렇습니다. 만약 실크 스커트와 매칭 하신다면 시상식장에 가서도 손색없습니다. 악세서리는 크리스탈도 나쁘지 않겠지만, 마노원석과 신주소재를 보태어 상의의 화려함을 조금은 차분하게 해주겠습니다.

면 프릴 블라우스

잉크 색상의 진에 리본과 프릴이 아주 귀여운 포인트인 이 옷은 길이가 넉넉해서 아랫배도 살짝 감출 수 있구요, 스키니 진을 매칭해도 허벅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의를 좀 피트 한걸 원하신다면 상의는 좀 넉넉하게,, 넉넉하다는 의미는요, 길이가 좀 길거나, 품이 좀 여유가 있거나 하다는 겁니다. 결코 길이가 길고 품이 여유로운 박스 스타일이 아닙니다. 상하가 다 피트 된다면 탑 모델이 아닌 이상 보기가 편하진 않습니다. 활동하기도 불편하구요,, ^^ 옷은,, 편하되 이쁘게~



하이넥 블라우스

일반 일자 블루 진에 팔은 시원하게 목엔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는 바닐라 색상의 블라우스를 매칭 해 보았습니다.

이곳이 더운 나라임엔 틀림이 없지만, 가끔, 터틀 넥이나 폴라를 입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땐 쉬폰 소재로 가벼워 보이게 연출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니트는 일단,, 더우니까요~ 한가지 더,,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옷은요, 머리는 살짝 올려주심이 좋겠죠? 너무 목에 포인트를 준 것 같아서 잔잔한 진주 목걸이로 시선을 나눠줬습니다.

오닉스 포인트 실켓 T

품은 샤링이 있어서 결점 커버엔 일등이죠. 이 옷은 뒷모습입니다. 목걸이로 아셨을 텐데,, 뭐라 해야 하죠? 등걸이?? 내가 보이지 않는 뒤에도 가끔은 신경을 써보고 싶네요. 엉덩이 까지 내려오는 기장이라 하의는 요즘 유행인 스키니 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렌지색 탑과 볼레로

이 청바지는 반 나팔이라 하기도 하고 부츠 컷 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운데 박음질이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주죠. 이 탑을 선택한 이유도 이 박음질 때문입니다. 청바지의 고유한 오렌지색 박음질 이거든요. 약간 바랜듯한 이 색상은 가는 실 한 줄이지만 분위기를 확 리드하는 힘이 있습니다. 탑이 약간 집시스러워서 악세서리도 핸드페인팅한 자개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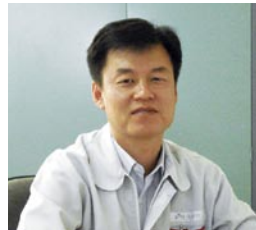
호피무늬 탑

화이트 진은 잘 입으면 시원해 보이고 잘못 입으면 정말 더워 보이는 거 아시나요? 블랙 앤 화이트도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무척 어색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점잖은 자리가 아닌 친구들과의 침묵의 자리라면 이런 의상 어떨까요? 참, 신발과 벨트도 블랙으로 맞춰 주신다면 이번 블랙 앤 화이트는 완벽한 성공이겠죠? 이런 탑은 자켓 안에 받쳐 입거나, 니트 안에 입어도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악세서리까지 호피무늬로 완벽한 '호피 블랙 앤 화이트'가 되어 보자구요~



‘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호의 채용, 고용의 형태에 이어 달에는 인사노무에 있어 가장 예민한 사안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흔히 우리는 노동조합하면 회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무노조 대비 공식적으로 사원대표와 협상해야 하는 의무사항(임금인상, 단체협상 등)이 발생함으로써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회사와 사원간에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생김으로 인해 노무 문제의 조기 발견 및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명확한 대화 상대가 설정됨으로 인해 회사로서는 오히려 관리력 손실을 줄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외자 기업으로서는 노동조합 설립 없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무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 대표와 사원대표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간 정기적 대화를 통해 노무문제 협의 및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원들의 노조 설립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이를 막지 못할 경우 또는 이미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회사에 보탬이 되는 건전노조로 만들 것인가 또 이를 위해 사원대표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가 등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며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 되었을 때 비로소 화합적 노사관계, 가치창조적 노사관계가 창출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과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Bekasi 소재 D 공장 사례

2005년 10월 Bekasi 소재 전자부품 회사인(1996년 설립, 인원 규모 약 150명) D사에서는 평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회사내 “노사협의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문제인원들이 주동이 되어 강성노조로 알려져 있는 SPMI를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하고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마친 후 회사에 대해서는 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단체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회사에서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으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은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사원들이 팔에 노란띠를 착용(전체사원 150명중 75명 착용)하고 지속적으로 노조인정 투쟁 활동을 전개함. 회사에서는 일단 강성노조의 침투 차단을 목표로 노동조합의 실체는 인정하되 제3자의 개입이 없는 회사단위 노동조합(SPTP)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논리 개발 및 사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노동부 및 SPMI 상급 단체에 대해서는 회사의 노조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지원을 요청함. 아울러 사태 수습 후속 조치로 회사는 “회사단위 노조(SPTP)”를 공식 설립하고 기존 강성노조(SPMI)에 가입되어있던 인원들을 설득 및 탈퇴시키고 회사단위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기존노조를 무력화 시킴과 동시에 사태를 주동하였던 문제인원에 대해서는 한국 연수 후 퇴사조치, 근태(출결)문제를 사유로 징계 및 퇴사 조치 등의 작업을 거쳐 정리하고 공식노사협의의 기구로서 “회사단위 노동조합(SPTP)”을 적극 지원 및 육성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함.

노사협의 기구 운영 관련 제안

1. 無노조 운영

위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노동조합의 설립 없이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극대화함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 시키고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욕구를 사전 차단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함.

1) 정기적 회의체 운영

인니 노동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노사협의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해 회사대표 및 직원대표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집행부 구성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회사규모에 따라 그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데 보통 회사대표 및 직원대표 전체 수가 최소 6명에서 최대 20명 까지로 구성된다. 물론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사전 인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사협의회 설립 후에는 정기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여(회사의 상황에 따라 횟수 유동적이나 통상 월1회, 최소 분기 1회 개최함) 직원들의 건의사항 수렴 및 F/Up, 생산성 향상 및 복지개선을 위한 협의, 회사의 경영 여건 및 정책 또는 홍보사항 등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노무정보 관리력 제고

인사부서에 항상 노무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monitoring할 수 있는 기능을 둠으로써 현장사원의 정서, issue 사항, 문제인원 관련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할 수 있고 아울러 이런 노력들을 통해 상기 사례에서 노출된 문제인원의 돌출 행동(회사도 모르는 사이 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음.

3) 對 관공서 관계 강화

평상시 노동부, 경찰서 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기 사례에서나타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항을 회사에 사전에 알려준다든지 또는 직원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회사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좀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보다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단,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사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하며 관공서는 단지 제3자로서 도움을 주는 기능에 국한될 수 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건전 노동조합 육성

회사로서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무노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선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노동조합 대표 Mind Setting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위상, 위원장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 등을 수시로 주지 시킴으로 인해 올바르게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노조 역할 변화의 당위성(요구만 하는 역할에서 회사의 생존이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 즉 “제 몫 챙기기에서 제 역할 다하기” 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동반자적 관계 유지

노동조합 집행부가 직원대표로서 회사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또한 직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Lead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아이디어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수 있다.

1 정기적 Meeting을 통한 회사 현황 및 정책 설명, 사원 협조 요청.

2 기초질서 준수 활동 동참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Discipline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직원들의 근무기강 관련 현주소를 파악하고 무질서를 바로잡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함.

3 안전사고 예방활동 동참

안전사고 예방팀을 구성하여 현장 순찰, 문제사원 지적 및 징계조치 등을 노사가 함께 시행 함으로써 사원 Mind를 제고하고 회사 경영활동에 기여하도록 유도함.

3) 건전 노사 문화 창출

① 노사화합의 전통 수립

임금인상, 단체협상 등을 노사가 서로 win-win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고, 노사 문제 발생시에도 원칙을 가지고 회사 경쟁력 강화, 상호 화합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하는 등 긍정적이고 회사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노사문화의 전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집행부의 정기적 교체

보통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다. 노조가 있는 대부분의 회

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노조대표들이 회사의 이권(식당운영, 매점운영, 협동조합 운영 등)에 개입이 되어 본분의 역할 및 업무는 소홀이 하고 자기 밥그릇만 생각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서 철저하게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체크함은 물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비리가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보통 3년 임기인 집행부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좀 더 참신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진 인원이 사원 대표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전체적 조직문화도 긍정적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③ 사원 자질 향상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우수한 사원이 선발되고 문제사원이 물의 없이 퇴사할 수 있는 철저한 인사노무 관리력 확보가 중요하며 사원들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및 각종 캠페인 활동(기초질서 준수, 근로안전 mind 제고 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아울러 회사 내외부에 사원들에게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표어, 포스터(회사목표,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관련) 등을 게시하는 것도 사원들의 사고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 시킬 수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사 협의회의 역할을 최적화하여 무노조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안드린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는 사원들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쫓아올 수 있도록 그 대표인 노조 집행부 및 기타 사원대표들을 관리, 육성,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이나 사람이나 다 물, 공기, 나무 등 자연환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정화시키면 좋은 환경이 되어 나에게 다시 보탬을 주지만 관심을 소홀이 하고 방치하게 될 경우는 언젠가는 재앙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흔히들 노무관리에는 정답도 없고 왕도도 없다고 한다. 항상 현장의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를 잘 살피고 그 조직원들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들어주고 지혜롭게 해결해주고, 관리하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꿀 때 비로서 회사가 원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노사협의기구 장단점 분석

구분	내 용	장/단점
노사협의회 (Lembaga Bipartit)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의무사항 *회사 및 사원대표로 구성	·장점 단체협약, 임금 인상협상 등 노조대비 소모전 적고 관리수월 ·단점 -사원 만족도(노조대비 대표성) -노조 갈등 예상
회사단위 노조 (Serikat Pekerja Tingkat Perusahaan)	*노동조합(상급단체 無) *단체교섭권 -단체협상(1회/2년) -임금인상(1회/1년)	·장점 -노사협의회 대비 대표성 높음 -사원 조합비 납부 無 -제3자 개입 無 ·단점 단체교섭 등 관리력 소모
전국단위 노조 (SPSI, SPMI 등)	*상급단체(지방, 전국)가 있으며 노조비의 일부를 상납하여야 함 *단체교섭권 : 동일	·장점 -회사단위 노조대비 사원만족도 높을 수 있음 ·단점 -상급단체 간섭 -위부 ISSUE 동요 가능성 -강성노조일 경우 회사 경영에 어려움 예상됨



한국아이를 찾아 가세요

내 어린 시절 동네어귀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이 낯설게 여겨졌던 만큼이나 주변에 가끔씩 서성거린 혼혈인들도 나와 피부색과 생김새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무섭게 느껴졌고 쉽게 그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것 같다. 우리의 20세기 혼혈인 역사는 이주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며 반도에 들이닥친 외국군대가 남긴 일종의 전쟁 상흔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들 혼혈인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임을 자긍심으로 내세운 국민 교육을 받은 탓인지 외국인과 피가 섞인 경계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당시의 혼혈인에 대해 전란에 진주한 외국군대 병사와 맺어진 비정상적인 관계 즉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외국 군인과 동거하였거나 외국군 부대주변의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더욱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한민족 특유의 강인함을 물려받았는지 차별과 냉대 속에서도 가수로 운동선수로 지독한 차별이 만연된 세상에서 제법 성공한 사람도 있다. 2006년 미국의 슈퍼볼 MVP 하인즈 선수의 신화는 대표적이다. 흑인의 피가 섞인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이역만리 남편의 나라로 날아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까지 그 어머니의 인생역정은 긴 한숨과 눈물로 점철되었을 것이지만 곳곳이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보란 듯이 우뚝 선 경우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시골의 경우 장가들지 못한 농촌총각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2세가 초등학교 학생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스런 현상(통계에 의하면 6만6천쌍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이고 농촌자녀의 35%를 차지하고 있다함; 이를 다문화 가정이라고 칭함)이 되었으나 얼마 전까지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소위 많이 배운 식자층이나 자유분방하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여성만의 전유물로 여겨져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받아 들여졌다. 또한 외국으로 유학 떠나 현지인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 가문을 송두리째 먹칠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문중에서 파문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가족과 친지들의 반대에 부딪치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역시 잠재된 단일민족 강박관념의 표출이었고 지난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외국군인과 맺어진 비정상적인 결합의 잔영일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한국민이 세계로 나아갔고 또한 많은 외국인도 한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과의 일상화된 교류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자연스럽게 혼인하는 사회적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한국밖에 세계 도처에서 한국민과 현지 외국인간 혼인은 큰 시선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에도 현지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제법 있다. 이들은 현지인 남자와 한국여자와 결혼하여 사는 커플들이 몇몇 있기는 하나 드문 편이고 대부분 현지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의 결합이 대부분이다. 아무래도 여성보다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고 다양한 남성들이 해외인 인도네시아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이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으나 한국으로 돌아가서 배필을 찾지 못하여 현지 여성과 결혼하였거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사별 등으로 재혼하는 형태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경우와 여러 가지 이유로 동거 형태의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있다. 한국 남자의 근면성과 성실성이 인도네시아 여성들에는 팬찮은 신랑감으로 여겨지고 있고 혹은 딸을 둔 가난한 시골가정에서 입하나 드는 셈치고 외국인과 결혼을 쉽게 허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한국남성과 인니여성의 결혼 가운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많이 보게 된다. 대부분 한국인 남자의 나이가 인니여성들보다 10세 전후 많은 커플이었다. 그래도 정상적인 특히 정상적인 혼인보다는 동거형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동거남은 사업차 혈혈단신 날아와 가족을 한국에 둔 채 장기간 남자 홀로 생활하기라 쉽지 않았을 것이고 제법 팬찮은 신랑감으로 인식되어 현지인 여자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본부인과 처를 둔 채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또 다른 이유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치 못하자 현지인 여자와 결혼이라는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다.

나는 지난해 가을 버까시 지역의 교민사망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있다. 50대의 k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10여년 전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한국인 회사를 전전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직장도 없고 불법체류가 되자 우연히 알게 된 현지인 여자와 동거를 하였고 6살 된 여자아이까지 두었다. 수입원도 없이 동네사람들로부터 끼니를 도움 받아 살아가던 무능한 가정에 대해 현지인 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였고 k씨는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 남편의 사망소식을 듣고 귀가한 현지인 처와 아이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기 이전에 장례비용과 병원영안실 사용료를 걱정하며 대사관에서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다. 나는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기보다는 초라한 행색의 어미 옆에서 큰 눈망울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방인인 나를 낯설게 바라보는 여자아이에게 눈길이 갔다. 아이는 얼핏 보아도 한국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임을 알 수 있었다. 아이의 한국말은 아저씨 정도밖에 할 줄 모르고 내가 건넨 5만루피아 지폐에 좋아라하고 팔짝



뛰는 천진난만한 모습에 나는 쓸쓸한 연민의 정이 밀려왔다. 여자아이는 물론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 훗날 제 아버가 천만리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미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체류를 목적으로 함께 한 극빈한 삶 가운데 죽어갔고 이로 인해 자신도 주변인으로 힘겹게 살게 되면 아버와 아버의 나라에 대해 혹시 원망을 하지 않을까 적잖이 우려스러웠고 동포라는 이유로 마치 내가 잘못된 것처럼 죄책감이 밀려왔다,

k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몇 몇의 한국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처와 자녀를 두고도 인도네시아 현지인 여자와 동거하는 이중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 2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처와 자녀들은 이역만리 떠약별 아래에서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가장을 염려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연유야 어쨌든 그들이 싫었다. 이런 교민들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몇 차례 실패를 겪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경우였다. 이러다 보니 정신적 육체적 의지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정상적인 체류에도 문제가 생겨 부득불 현지인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녀까지 두게 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도덕성을 탓하기 이전에 그들 사이에 새롭게 태어난 자녀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물론 그들이 재기하여 현지처와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최소한의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현지처와 자녀를 버리거나 한국으로 훌쩍 잠적해버리니 말이다.(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현지처가 자녀를 데리고 재산을 챙겨 사라지는 경우나 남편의 무능을 이유로 떠나버리는 경우다) 그 자녀들은 과연 자라서 아버의 무책임한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혼혈아로 살아가며 훌쩍 떠나버린 미군혹인 병사 아버지를 그리는 우리의 지난날 혼혈아와 같은 전철을 그들도 밟아가며 떠나가 버린 아버를 원망하고 그 아버의 나라를 멀리서 욕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어느 날 시골 파출소로부터 공관에 날아든 전화 한 통화가 있었다. 다름 아닌 한국인 7세 여자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공관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현장으로 갔다. 파출소 안에 보호 중인 소녀는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걸인에 가까운 남루한 차림이었고 한국아이 인상은 아니었다.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 남방계 아이인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몇살이니?” “이름이 뭐니?”하고 한국말로 물었으나 아이는 나와 눈길

을 맞추지 않은 채 자폐증 증세의 아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아이가 한국아이라고 할 만 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파출소 경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경관은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한 채 자기 관할에 한국인들이 현지인 여자와 사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아이를 버리고 부부가 잠적하고 있어 이 아이도 버려진 아이가 아닌가 하고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였다고 한다. 나는 한국아이라고 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하고 경찰에 그런 내용을 설명한 후 아이를 그대로 남겨둔 채 되돌아 왔다. 이후 그 파출소에서 아이를 다시 찾아가라는 연락은 없었지만 나는 그 아이가 혹시 한국인과 현지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 ‘Koindonesian’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본의 아니게 체류를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는지 부득불 현지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 자녀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koindonesian’으로 살아가면서 지난날 우리 땅에서 힘겹게 살아온 혼혈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박영민의 영화

Talk Talk

TERMINATOR 2 JUDGMENT DAY

Terminator 2: Judgment Day (1991)

전편만한 속편은 없다는 징크스는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속편은 전편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정의상 참신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전편과의 계속성을 충실히 유지하면서도 태생적인 한계를 나름대로 극복해낸 속편이 있다면, 박수를 받아 마땅하겠습니까.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만큼, 박수가 아깝지 않은 속편이란 드물죠. 샘 레이미 감독의 <Evil Dead> 연작의 경우, 3편이 가장 호평을 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1, 2편이 저예산 호러물인 반면, 3편은 넉넉한 자본을 바탕으로 전편과는 판이한 분위기의 주류영화로 변신한 경우라서 진정한 속편이라고 부르기가 좀 뭣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빼어난 속편으로 열린 꿈을만 한 영화는 <Godfather 2>와, <Terminator 2>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Godfather 2>는 1편에 흐르는 우수 어린 간결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1편만 못하다는 사람들도 많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Godfather 2>가 1편의 시간대를 앞뒤로 오가면서 내용상 그 전편(prequel)과 속편(sequel) 역할을 동시에 해냈다는 점, 1편보다 더 극적이고 장중한 느낌으로 콜레오네 가족사를 완결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높이 샅니다. 시대를 오가는 편집도 뛰어났고, 코폴라 감독이 담아낸 메시지의 일관성도 원작소설의 힘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이 영화는 2대에 걸쳐 전혀 다른 경로로 매우 닳은꼴이 되어가는 두 父子의 인생역정을 마치 관객이 자신의 낡은 앨범을 뒤적이며 회한에 젖는 것만큼이나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려냈습니다. 로

버트 드니로와 알 파치노 두 명배우의 번득이는 연기가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물론이죠. 처음에는 미스캐스팅인가 싶더니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말론 브란도보다 더 말론 브란도스럽게’ 변해가는 저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는, 아, 어쩌면 종단 말입니까! <Godfather 2>는, 더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어렵다는 속편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속편은 오히려 관객들이 전편에 대해서 품은 그리움을 탄력삼아 더 멀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뛰어난 속편으로 기꺼이 꼽는 또 하나의 영화는 <Terminator 2(T-2)>입니다. <Terminator>가 개봉하던 1984년, 저는 입시를 치른 후 마지막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부산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광복동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본 것이 이 영화였습니다. 드문 해방감을 만끽하던 중이라서 그럴까요? 이 영화를 본 기억은 유난히 생생합니다. 극장 앞 거리 풍경이나, 우리가 지껄이던 실없는 대화까지도. 그때 한 친구는 이 영화를 이미 보았던 터라 <무릎과 무릎 사이>를 보자고 우기다가 졌는데, 그가 적당한 대목에서 재미있는 변사노릇을 했던 것도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을 더 훈훈하게 만듭니다. 워낙 재미있게 본 영화여서 속편이 제작된다는 소식을 기다려 보았지만, 3-4년이 속절없이 흘러간 즈음부터는 <Terminator>의 속편은 만들 수 없거나, 적어도 너무 늦어버렸다는 쪽에 내기를 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의 근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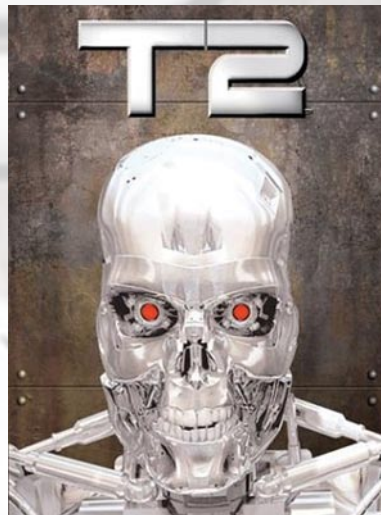
첫째, 80년대 후반 불과 3-4년 동안에만도 특수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Terminator>의 특수효과와 거기에 등장했던 최첨단 살인기계들이 구닥다리로 보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래에서 온 기계인간이 저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SF는 긴장감과 놀라움을 주기는커녕 우스워 보일 터였습니다.

둘째, 광복동 극장에서 무릎을 치며 도대체 저런 배우를 어디서 구했을까 감탄했던 (로봇 배역에 딱 들어맞는 그 영어 억양이라니!), 이름도 발음 못하겠던 근육 덩어리의 유럽 육체미 선수는, 불과 3-4년 만에 실버스타 스탈론을 쫓히고 미국의 새로운 영웅으로 부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기용하지 않은 <Terminator> 속편은 맥 빠진 사기극 같아 보일 것이고, 그가 또다시 기계인간으로 등장하면 이제 관객들이 그

에게 박수를 칠 판이었습니다. 만일 84년 겨울 광복동에서 어묵꼬치국물을 나눠먹던 우리 중 누군가가 저 사내가 훗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의 주지사가 될 거라고 했다면, 그는 과도하게 실없는 소리를 한 별로 꼬치국물 세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슈왈제네거의 변화는 단지 액션 스타로 유명세를 탄 것만은 아니고, 그도 사람인지라 나이를 먹었고, 육체미 선수들이 늘상 그러하듯이 운동을 접은 후 근육의 사나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의 인상은 <Kindergarten Cop>이 되어 웃음을 선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부드러워졌던 것이죠.

그런 연유로, 무려 7년의 세월이 흐른 1991년에 <Terminator 2>가 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혀를 찼으며, 기대보다는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았더니, 제임스 카메론은 슈왈제네거의 역할을 뒤집어 “재프로그래밍되어 주인공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과거로 파견된 구닥다리 로봇”으로 변신시켜 버렸더군요. 제가 안 될 거라고 돈을 걸었던 모든 이유들을 일거에 장점으로 역전시켜버린 거였습니다. 입을 다물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놀라움은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T-2>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한 서사구조의 저수지로 삼아버렸습니다. 예컨대, 자기를 지켜주러 온 로봇이 ‘그때 그놈’인줄 알고 주인공이 도망다님으로써 긴박감을 더한다든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원천기술은 전편에서 부서진 로봇의 팔에서 회수한 칩에서 비롯되었다는 SF적 시간역설(time paradox)을 더해 넣는 식으로 말이죠.



<Back to the Future 2>에 전편의 장면들을 짜깁기해 넣어 풍성한 잔재미를 준 것도 영리했지만, 세월이라는 장애물의 반탄력을 멋지게 활용한 경우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T-2>의 서사구조는 존 코너와 사라, 그리고 터미네이터 3자관계의 발전에서 그 동력을 얻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존은 로봇에게서 보호자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사라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러다가 결국 셋은 화해에 이르는 것이죠. 존은 예전의 악당 로봇을 말로만 들었을 테지만, 관객들은 사라와 함께 일찌감치 그 생지옥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터미네이터와 장난치는 아들을 바라보는 사라의 착잡한 심정을 존보다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편의 이점을 이보다 더 모범적으로 살린 드라마투르기(dramaturgy)가 어디 있겠습니까.

<T-2>의 설정은 당연히 뿐이니 놀랍지 않다고요? 콜럼부스가 펍! 세워놓은 달걀을 쳐다보던 구경꾼의 머릿속에 떠올랐음직한 그런 생각은,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속편의 가능성을 생각해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수효과가 발달한다고 아무나 더 그럴듯한 SF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편으로부터 무려 12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임스 카메론 없이 만들어진 <Terminator 3>의 악당 로봇은 훨씬 더 신형이지만 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던가요? 성공한 속편이 이러한 성취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속편은 어디까지나 속편이죠. 속편의 독창성(originality)이란, 애당초 전편이 ‘본래적(original)’이라는 의미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니까요. 공들여 잘 만든 속편들을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낮게 드리워진 한계 속에서 도전을 기회로 역전시키는 쾌거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겪는 작지만 뜻 깊은 성공사례들과 닮아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속편들은 미소를 머금게 하는 잔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뻔하고 지긋지긋한 조건들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모든 교민 여러분의 2008년 한 해가 2007년보다 나은 ‘속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경제 위협하는 산유국의 탐욕 Unwanted Offspring

이란·러시아·베네수엘라 등 반자본주의·반서방 감정 노골화

지금 이 2000년 1월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수정 구슬을 보면서 앞으로 6년의 세계경제 동향을 예측해 보라는 주문을 받았다면? 물론 수정 구슬은 몇 가지 힌트를 준다. 다가올 주식시장 붕괴, 뉴욕 쌍둥이 빌딩에 가해진 자살 항공기 테러, 질질 끄는 두 건의 전쟁. 그리고 이 모든 요인 때문에 4배나 뛰어오른 유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2000~2006년 세계 개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3.2%의 성장률을 보였다. 6년 단위로 봤을 때 사상 최고의 급성장이다.

이런 놀라운 탄력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역사상 이에 견줄 만한 시기가 두 번 있었다. 서양 산업화 제1기인 19세기 말, 그리고 유럽 재건과 동아시아 빈곤 탈출로 특징지어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다시 말해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가 경기순환과 그 시대의 정치적 긴장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의 물결을 일으켰다.

오늘날 세계는 이와 유사한 변화를 겪는다. 사상 최초로 진정한 세계경제가 탄생했다. 지난 15년간 거의 모든 국가가 무역과 시장의 개방이라는 기본 원칙에 순응했다. 인도부터 중국·코스타리카·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신흥시장'(이 국가들은 말 그대로 빈곤에서 벗어나 어엿한 경제 주체로 부상했다)이 세계 GDP의 30%를 차지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세계 GDP 성장의 5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런 성장은 즉각적으로 수요의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했다(원자재의 가격은 그냥 비싼 정도가 아니라 지난 20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현재의 오일 쇼크가 경제 둔화를 초래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가 급등은 수요의 급증 때문이지 갑작스러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이 수요를 부추기는 성장에 또 고유가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가져왔다. 시장과 자본주의, 세계화가 지



배하는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이상한 현상이 눈에 띈다.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현대화에 저항하고, 반서방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심지어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명명거리며 잘 사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그런 나라들이다. 석유가 풍부한 이 나라들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원칙에서 예외적인 존재다. 사실 이들이 이런 예외적인 지위를 누리게 된 밑거름은 세계시장의 성공이다. 이것이 현대 세계경제의 음과 양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수요를 창출하고, 그 수요는 비(非)자본주의 국가들이 살아갈 여지를 제공한다. 이런 현상이 조만간 사라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 구조의 한 부분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에도 영향을 주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서반구를 통틀어 미국의 이익에 맞서 가장 용기 있는 도전을 감행해 왔다. 또 이란은 중동의 패권국이 되고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풍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러시아는 옛 제국의 정복에 못지 않은 세력 확장의 꿈을 키워간다. 권력은 단기간에 산유국으로 옮겨갔다. 현재 서방의 유수 석유 회사들은 세계 석유 드라마에서 단역 배우에 불과하다.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엑손모빌도 석유와 가스 보유량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4위다. 그 위의 13개 석유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부터 베네수엘라의 PDVSA까지 모두 국영 회사다.

석유 공급은 앞으로도 뻣뻣할 전망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석유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이란·러시아·이라크·베네수엘라 이렇게 5개국뿐이다. 이들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에서도 석유 공급을 늘리려는 진지한 노력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 증가율은 연간 3% 미만이다. 또 이란은 생산량에 변화가 없으며 이라크는 전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가 하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은 50% 감소했다. 이 나라들에는 저절로 굴러들어온 복인 석유 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데 기꺼이 투자할(투자의 결실은 10~15년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 기능을 못하는 이들 나라의 정권은(석유로 번 돈을 석유 생산에 재투자하는 대신) 국민에게 쥐꼬리만 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환심을 사는 데 바쁘다. 이 정부들이 부패를 일삼고 제 기능을 못하게 고립된 섬처럼 처신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국력 쇠퇴의 길로 치닫게 된다.

현재 석유 사업에 필요한 투자액은 엄청나다. 골드먼 삭스의 제프리 큐리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앞으로 10년간 3조5000억 달러(놀랍겠지만 ‘조’ 단위가 맞다)가 든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액수는 그보다 훨씬 적어 앞으로

한동안은 고유가가 유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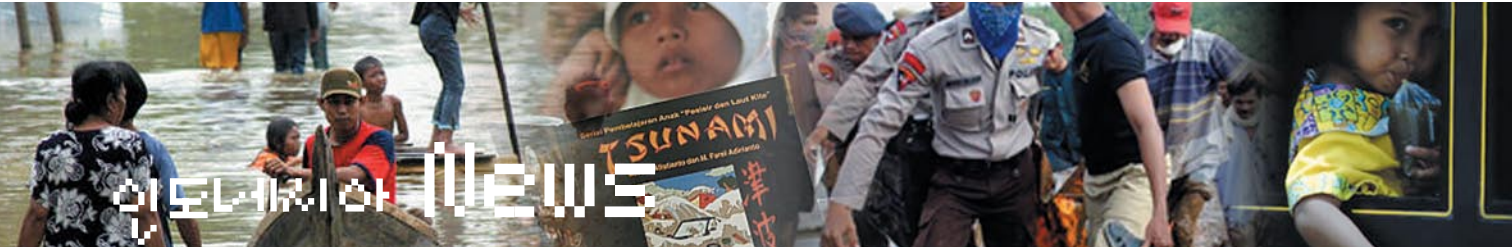
유가를 내리는 방법을 한번 상상해보자. 현재 석유 생산자 연합[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있지만 소비자 연합은 없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국의 석유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인도와 중국은 새 공급원을 놓고 우선권 확보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 석유의 공급이 안정되고, 가격이 생산자 연합이나 투기 조작이 아니라 시장에서 책정된다면 이들 국가 모두 이득을 보게 된다. 주요 소비국들의 비공식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까?

고유가가 초래하는 한 가지 확실한 결과는 원유 채취 기술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1859년 미국의 에드워드 드레이크 대령은 기계 굴착법으로 암반 21m를 뚫어 착유에 성공했다. 그러나 요즘은 “석유를 찾으려고 수심 3km까지 들어가서, 암반을 수직으로 6km 굴착한 다음, 다시 수평으로 9km 정도 굴착하는 일은 보통” 이라고 에너지 분석가 피터 휴버와 마크 빌스는 말했다. 그리고 요즘 암반을 16km 정도 굴착하는 비용은 1859년 드레이크가 21m를 굴착하는 데 들었던 비용과 비슷하다.

또 이보다 큰 변화도 진행 중이다. 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일이다. 1950년 미국 경제 산출량의 20%가 전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산업에서 나왔다. 하지만 오늘날 그 비율은 60%에 이르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테크놀로지부터 서비스 부문까지 모든 성장 분야가 가솔린이 아니라 전기를 동력원으로 한다. 그 전기를 만드는 데 무엇(석탄·핵,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느냐는 또 다른 큰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석유를 이용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이다.

석유가 핵심적인 동력원으로 여겨지는 분야는 ‘교통(수송)’ 하나로 국한되는 추세다. 하지만 심지어 교통 분야에서도 미래는 전기다. 시장 세력과 미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 앞으로 10~20년 안에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가 내연 엔진을 대체할 전망이다. 물론 그때가 돼도 석유나 석유 회사, 산유국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산업계의 생명줄이 아니라 그저 다양한 동력원 중 하나가 된다. 앞으로 150년 후면 석유가 제자리를 찾을 듯하다.



인도네시아 광산·에너지-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매력 국토닌신한증권 '아시아리서치 포럼'

아세안(ASEAN)의 떠오르는 투자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올해 중국에 투자해 재미를 본 투자자라면, 다른 신흥시장에도 남들보다 앞서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때다.

국토닌신한증권은 5일 개최한 '2007 아시아 리서치 포럼'에서 제휴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BNI증권, 말레이시아의 KIBB증권을 초대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고유가와 함께 광산과 에너지 섹터에 관심이 쏠렸다.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부동산 투자 매력이 부각됐다.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 광산·에너지 섹터 '주목'

▲ 노리고 가먼 인도네시아 BNI증권 리서치 헤드

노리고 가먼 인도네시아 BNI증권 리서치 헤드는 "인도네시아는 광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국가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투자위험이 축소되는 국면에 있고 예측가능한 물가인상률은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해외투자가 늘고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국내 투자자에게 아직은 낯선 곳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세계4위(2억3000만명)의 인구와 천연가스, 목재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지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 따라서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직접투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노리고 가먼 리서치헤드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소비 지출과 직접투자 증가로 전년보다 6.8%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6~7%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신용등급도 정부 예산의 건실화와 함께 정치적 위험요인이 줄어들며 현재 BB-(스탠다드앳퍼어스), B1(무디스), BB-(피치) 등급에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한단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섹터별로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기초금속과 에너지에 대해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인도네시아는 금, 주석, 석탄, 천연가스(LNG), 구리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아시아 유일의 OPEC회원국이기도 하다. 노리고 가먼 리서치헤드는 "시장 경제에 입각한 광업 법안의 도입으로 광산 개발과 채굴과 관련한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유가 강세와 함께 큰 폭의 상승여력을 갖고 있

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시불까?..정부 차원 부동산시장 활성화

▲ 연전 여우 말레이시아 KIBB증권 리서치헤드

연전 여우 말레이시아 KIBB증권 리서치헤드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동지역 자금을 기업과 부동산 분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의 아파트는 상하이나 방콕보다도 시세가 싸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철폐하고, 시세가 25만링깃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입 인지세 비용을 절반으로 축소했다. 또 경제 특구를 통한 말레이 반도 개발 노력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사무용 부동산이 수익률과 시세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이라며 "올해중 쿠알라룸푸 부동산 평균 시세 대비 73% 프리미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허용된 결과 리츠(REITS)의 성장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거 3년동안 178% 상승했고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22% 상승한 주거용 부동산 중 고가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높은 시세 상승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청장 신은만국증권 리서치헤드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투자자들은 투자 논리에 따라 투자하는데 반해 한국과 일본의 투자자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 경험에 따라 금융상품보다는 부동산과 주택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발리 기후변화 총회 성패 美-中에 달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일 개막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패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동참 여부에 달려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세계 192개국의 정부와 의회 대표, 과학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국제 환경보호질서 구축 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나고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된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대국'인데도 36개 국가로 이뤄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고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최근 “지난해 미국 경제가 성장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1.5% 줄었다” 고 밝히면서 “이 시대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라는 양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앞서 1월 국정연설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석유소비량을 20% 줄이고 현재 3%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선진 산업국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감축에 앞장서야 하며 나아가 관련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 케리 미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산업 국가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수용해야 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의무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印尼 “우리 전통춤 도용말라” 말聯에 경고〉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원주민 수백여명은 29일 말레이시아가 자국 관광 홍보를 위한 광고에 자바섬의 전통춤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자바섬 동부 포노로고 지역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16시간에 걸친 버스 여행 끝에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해 알록달록한 특유의 얼굴문장을 하고 “인도네시아” 와 “레오그 포노로고” (포노로고 지역의 전통춤)를 번갈아 외쳤다.

시위가 벌어지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100명의 경찰과 물대포 2대, 철조망 등을 동원해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엄중 경호했다. 레오그 포노로고 연합의 푸르노모 시디 회장은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사과를 촉구하며 “만약 말레이 정부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외교 관계의 단절을 요구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레오그 포노로고는 인니 자바섬 동부 포노로고 지역의 전통춤으로서 검은 의상을 입고 공작 깃털로 장식한 무게 50kg의 큼직한 호랑이 머리 모양 장신구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신비로운 황홀경과 고행을 함께 표현하는 이 춤의 무용수들은 모두 남성들. 이들은 여성과의 접촉을 회피함으로써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채찍질에 맞춰 춤을 추며 여성스러운 외모의 젊은 무용수 최소 2명이 죽마를 탄다.

시위대는 또 말레이시아가 올해 초 다른 관광 광고에서 사용했던 노래 ‘라사 사안지’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이 노래가 자국의 말루쿠주 동북부에서 작곡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그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은 합법, 비합법적으로 말레이에 체류중인 인도네시아 국민 200만여명에 대한 처우 등 여러 문제를 두고 시비를 겨뤘으나 당분간 ‘문화 표절’ 이 새로운 논쟁거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자카르타 공항고속도로 해수 역류로 침수

— 대한항공機 등 여객기 수십편 이륙 지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26일 오후(현지시간) 역류한 해수로 침수되면서 국내외 노선 여객기 수십편의 출발이 지연됐다고 일간 콤파스가 27일 보도했다.

공항고속도로 침수로 이날 오후 9시55분 출발할 예정이던 자카르타발 인천행 대한항공 KE628편도 이륙이 2시간 가량 지연됐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자카르타 북부해안지대는 해수면보다 낮으며 이날 만조 때 수문 고장으로 바닷물이 역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오후 4시40분부터 밤10시30분까지 40cm 가량 침수됐다.

이로 인해 공항 주변뿐 아니라 자카르타 북서부지역의 교통이 거의 마미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역류한 바닷물은 이날 밤 10시30분부터 빠지기 시작해 27일 새벽 1시가 돼서야 차량소통이 정상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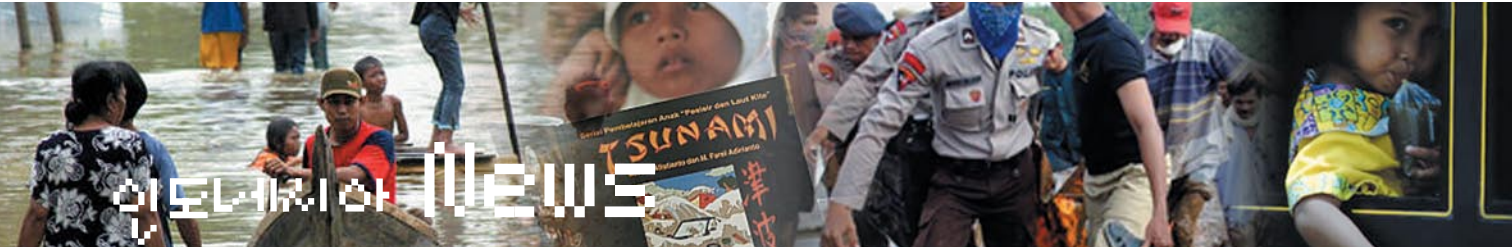
여객기에서 내린 승객들도 귀가할 차량을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귀가를 포기하고 공항대합실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교통 체증으로 공항에 택시가 부족해지자 택시들은 정상요금의 10배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낮에는 자카르타 북부 해안지역의 제방이 1.5km 가량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역류해 안출지역 도로 일부가 침수돼 많은 한국기업이 입주해 있는 보세지역 KBN 공단과 인도네시아 화물의 최대 관문인 탄중 프리옥 항구 등이 물난리를 겪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총장, ‘그린 경제 시대’ 주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일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세계화에 이른 ‘그린 경제’ 시대를 열자고 지구촌에 역설했다.



반 총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회의 개막에 맞춰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새로운 그린 경제(A New Green Economics)’란 글을 기고, “발리 회의와 그 이후 우리의 과제는 그린 경제와 그린 개발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 총장은 “인류는 지금까지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세계화의 3대 변혁을 거쳤다”며 “이제 ‘그린 경제 시대’라는 또 다른 커다란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반 총장은 이미 에너지 수요의 44%가 재생 에너지로 충당되고 있는 브라질을 소개했다.

반 총장은 “향후 30년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세계 역내총생산(GDP)의 0.1%에 불과하다”며 “(그린 경제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 총장은 “미국이 전력 수요의 20%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할 경우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독일의 경우 2010년대 말까지는 환경기술산업의 고용이 자동차업계의 일자리를 능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과학자들은 이미 뭇을 다했으며 이제는 정치인들 차례”라며 “발리 회의는 그들 지도력의 시험대”라고 역설했다.

반 총장은 3일 일본 베투에서 열린 제 1회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물 부족이 전쟁과 갈등의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반 총장에 대해 ‘중재자나 균형자’를 자임해온 데서 벗어나 기후 변화 문제에 열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카리스마를 쌓고 있다고 평가했다. FT는 반 총장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남극을 방문하는 한편,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에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이 3년만에 타결됐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발효된 상품협정에 이어 서비스무역협정마저 타결됨에 따라 사실상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했다.

10개 회원국을 가진 아세안은 중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다섯번째 교역대상 지역으로 교역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번 FTA 타결로 컴퓨터와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서비스 업체들이 그동안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번 아세안과의 서비스 협정은 국내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는 말한다.

또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쿼터에 관계없이 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한류 열풍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잦은 정권교체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가들도 FTA에 서명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중국-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은데다, 일본보다 한 발 앞서 FTA를 타결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또 미용사나 마사지사, 가정부 등 아세안 국가들의 인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투자협정을 타결해 한-아세안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과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시작한 뒤 202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과도 무관세 교역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 한전, 인니(印尼)에서 해외발전사업 기반 강화

한전 컨소시엄, 인니 전력사업 참여에 인니정부 지지 확보

인니 부통령, 인니 발전사업에 적극 참여 요청

한국전력 이원걸 사장은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유스프 칼라(Jusuf Kalla)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면담하고 한전이 이끄는 한국컨소시엄의 인도네시아 해외 발전사업 진출에 대한 인니정부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함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전력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컨소시엄의 수준 높은 기술력 제공과 함께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에 한전의 적극적인 투자지향을 전달하고 부통령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요청함

이에 대해 유스프 칼라 인니 부통령은 한국컨소시엄의 실질적



이고 적극적인 사업투자를 당부하고, 양국간 상생적인 협력기반 위에서 적극적인 인니정부의 지원을 약속함
특히, 인니 부통령은 현재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총 10,000MW 발전설비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발전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대체에너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함

이날 면담에는 소피안(Sofyan) 공기업부 장관, 파미(Fahmi) 산업부 장관, 에디(Eddie) 국영전력공사(PLN) 사장, 로니(Ronny) 철도공사 사장 등이 인니정부측 유관인사와 인니 자원개발회사인 NUANSA와 우리 한국의 서부발전, 포스코건설 등이 참석하였음

한편, 한전은 이미 전력그룹사 및 관계회사간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력시장과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5일 인니 자원전문회사 NUANSA와 칼리만탄지역 자원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한전은 현재 전력그룹사 및 국내 민간사들과 함께 칼리만탄섬을 비롯한 수마트라, 자바 지역 등에서 6~7개의 전력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사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인니 NUANSA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 방한시 석탄광산개발, 석탄액화설비, 철도 및 항만인프라건설 등을 위한 투자 MOU('07.7.25)를 한국 유관회사들과 체결한 바 있음

인니 해외사업 개발 추진현황

- 동부 칼리만탄섬 석탄광산 개발사업(추정량 6,000만톤)
- 서부 칼리만탄섬 Sebukit 토탄발전소 200MW급 IPP사업
- 자바섬 보조네가라 가스복합화력 750MW급 IPP사업
- 수마트라섬 Bangko Barat 석탄발전소 400MW급 IPP사업
- 수마트라섬 Bintan 석탄발전소 100MW급 IPP사업
- 자바섬 Cirebon 석탄발전소 660MW급 IPP사업
-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참여 추진
- 전력 IT 분야 및 통신망 구축 관련 기술교류 및 사업협력

한전은 이번 인니 방문과 부통령 등 정부 고위인사 면담으로 한전과 국내관련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니 자원개발과 발전사업이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니에서의 해외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일, 2015년까지 아시아 최고의 해외사업전문회

사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 아래 『Asia's Best Value Developer in Energy Service』를 비전으로 선포한 바 있었다
한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700MW 규모(지분 기준)의 해외발전사업에 참여 중이며, 2015년까지 10,000MW 용량을 확보하고 해외사업 분야에서의 매출액을 3조 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음

[중소기업청] 내년 1월 인도네시아에 'Korea Desk' 설치

나도성 중기청 차장,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차관 합의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 나도성 차장은 11.13일 Guritno Kusumo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차관을 면담하고 내년 1월 인도네시아 투자청과 중소기업공사내에 개소 예정인 'Korea Desk'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등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Korea Desk는 대인도네시아 투자 및 무역을 희망하는 우리 중소기업에 위한 제반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간의 기술제휴 등의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인도네시아 투자청, 중소기업공사와 Korea Desk 설치 관련 MOU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나 차장과 Kusumo 차관은 '07.6월 한·아세안 FTA(상품분야) 발효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양국 중소기업의 투자 및 무역사절단 상호 파견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06 한·인도네시아 교역량 : 137억불, 3.7% ↑ (수출 : 48억불, 3.4% ↓, 수입 : 88억불, 8.1% ↑, KOTIS)

* '67 ~ '05 투자누계 : 2,726건, 121억4백만불(투자건수 1위, 금액 7위, 인니투자청 승인기준)

나 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전지 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매년 9월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차관도 적극 협력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한·아세안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정책담당자 및 기업인 연수 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인도네시아 차관의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양국간 기술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차관 면담 이후 나 차장은 KOTRA, 수출보험공사 등 현지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확대 전략, 현지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네트워킹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印尼 경제성장 주도하는 3인의 '디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 경제가 외환위기 후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성장을 주도하는 인물은 놀랍게도 3명의 여성이라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3인의 디바는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45) 재무장관, 마리 팡에스투 무역장관, 또 미란다 굴통 중앙은행 수석부총재다. 이들은 각각 IMF,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적인 단체에서 경력을 쌓은 뒤 내각에 합류한 유능한 경제전문가들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를 지낸 스리 장관은 세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고 점심을 먹으며 경제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결과를 위해 협력한다” 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이슬람인구를 보유한 남성 주도 사회에서 여성이 정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라는 여성대통령을 배출했다. 하지만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아버지 수카르노의 후광을 입었을 뿐 본인 자신은 가정주부의 경력이 전부다.

미란다 굴통(58) 부총재는 타국의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과묵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달리 공개 발언을 자주하고 경제관련 국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주간지 사회면에도 종종 등장한다.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인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7년 중앙은행 부총재에 임명됐고, 2004년 수석부총재(2004년)로 승진했다.

스리 장관은 취임 후 국가수입 증대 방편으로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은 국세청과 관세청 개혁에 착수했으며 공무원 횡령이나 부정을 막기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부패한 관리를 퇴출시켰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조지아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IMF 재직 경력의 그는 국가개발기획장관을 거쳐 2005년 재무장관으로 승진했다.

스리 장관은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국민 170명 중 납세자가 1명 꼴인 상황

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스리 장관은 정부 기관이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세무공무원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이 최근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수출과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수출증대를 위해 진력한 마리 팡에스투(51) 무역장관은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국제무역, 금융 및 통화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이사를 역임했으며 세계은행 이사를 거쳐 2004년에 무역장관으로 유도요노 내각에 합류했다.

마리 장관은 인도네시아 내각에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중국계로서 독특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다.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 반공운동의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중국어를 포함한 중국 문화를 금지하고, 중국의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한해 공직으로 진출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드물다.

LS전선, 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 구축 사업 수주

LS전선(대표 구자열)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센터의 IT인프라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총 300만달러 규모로 LS전선은 교육센터 내에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위한 유무선 종합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등의 자문을 하게 되며, 컴퓨터 등 IT기자재 공급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LS전선은 시스템 통합(SI)사업 진출 이후 방글라데시 IT 교육센터, 이라크 IT인프라 구축사업 등 이 분야에서만 총 1천50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렸으며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에도 ICT 교육센터, 전자도서관, 전자기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기술자문을 수행했다.

LS전선은 KOICA 원조사업이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시장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의 진출을 돕고 FTTH, LS-HFC(LS Hybrid Fiber and Coax),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聯 경찰, 印尼 여성 엽기적 성폭행… 외교 문제 비화

– 임신 여성 성폭행, 외교관 부인 감금 등 인권침해 속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여성 가사노동자가 불법외국인노동자 단속요원에게 성폭행과 육체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두 나라간 외교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온라인뉴스 데틱콧은 비정부기구 ‘이주노동자 보호’의 보고서를 인용,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지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렐라(RELA)라는 불법외국인노동자 감시단의 요원에게 한 달여 동안 감금돼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진 채 성폭행 등 육체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인도네시아 국민의 반말레이시아 정서를 자극했으며, 이웃국가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10월 초엔 말레이시아 경찰이 임신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주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외교관 부인이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불법노동자로 오해받아 감금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가라데선수권대회에 심판 자격으로 참가한 인도네시아인 도널드 코로피타 씨가 불법노동자로 오해를 받고 말레이시아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본국으로 후송됐다.

이에 흥분한 인도네시아 국민이 자카르타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연일 과격 시위를 벌이며 항의했고, 결국 말레이시아의 압둘라 바다위 총리가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국회 정치외교위원회의 유스론 이자 마헨드라 부위원장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렐라 조직의 해체와 말레이시아 여행경계령을 발령할 것을 촉구했다. 줄키푸리 하산 의원이 말레이시아 당국의 만행에 대한 자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디노 파띠 잘랄 대변인은 “외교관 부인 감금 사건으로 양국관계가 단절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최선의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는 약 160만명의 인도네시아인이 가사노동자 및 농장과 건설 인부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만명 가량이 불법 체류하고 있어, 불법근로자 문제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중국기업, 印尼 전력사업 저가 공세

중국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인도네시아 전력사업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영자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중국기업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시행 중인 10개의 발전소 프로젝트 중 8개를 입찰을 통해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2009년 말까지 3년 동안 총 1만Mw의 전력생산능력을 갖추도록 전국에 35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총80억달러 규모의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자바섬에 총 6,9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 10개를 건설하고, 자바섬 이외 지역에 총 3,1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 25개를 건설한다.

최근 상하이 일렉트릭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인 1,050Mw 용량의 펄라부한 라투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전력회사인 하르빈 파워 엔지니어링도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더욱이 중국 국영기계공사(시노마크)는 자바동부 지역에 600Mw 규모의 탄중 아와르 아와르 발전소 건설 계약을 PLN과 체결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주로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발전소를 건설했으나, 최근에는 저가 공세로 나오는 중국기업들이 PLN과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총 1천Mw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중국기업은 미화 7억~8억 달러인 반면 프랑스의 알톰이나 독일 지멘스는 10억~11억 달러이다.

PLN의 에디 위디오노 사장은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절실하고, 첨단기술은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면 된다”고 말했다. PLN의 다리요노 프로젝트 책임자도 입찰 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정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3천5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대국으로 전력 소비량이 매년 9%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의 40% 이상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시골이나 오지에 거주하고 있어 전력사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Han Gang
한강

한국요리의
출발지~

(021) 7278 7802, 7278 7789

Jl. Wolter Monginsidi No. 99 Jakarta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 021.521.2212
hp. 081.888.5353
email: 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 및 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	721	0271~2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536	3530
안디옥 교회	7278	7944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 렌터카/기사클럽

우리 렌터카	081	119 3069
한성 렌터카	889	0471
쌍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 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JR SALON	7279	7906
컨덤	7279	2067~8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루루 부동산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 사진관

전' 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	546	0844
우리슈퍼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다뿌리 이스타나	5290	0133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산타코리아	722	9921
서라벌	572	3475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하우스 힐집	844	5877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해수산	739	7032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LA 갈비	7278	0550

● 신문, TV

동아일보	720	6802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한 타임즈	799	077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K-TV	525	3838
OKTN(KBS World)	797	6151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	------	------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532	797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	-----	------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Berlitz Helping the World Communicate

DO YOU SPEAK
Berlitz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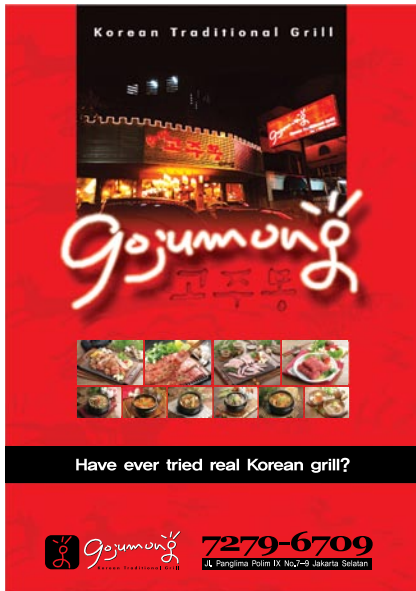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영어학습법

Hotel Intercontinental MidPlaza Jakarta
Shopping Gallery LG R-26 Jl.Jend.Sudirman Kav.10-11 JKT
Phone : 021-2514589 E-mail : berlitz@dnet.net.id

Plaza Dua
Jl.Metro Dura Niaga BA 2/43 Pondok Indah JKT
Phone : 021-7510452 E-mail : berlitz2@dnet.net.id

Website : www.berlitz.com

생활정보 가이드



Korean Traditional Grill

Gojumeong

Have ever tried real Korean grill?

7279-6709

U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고민세계		
벼룩시장	5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724	4442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삼성 화재	520	5511
LIG 손해보험	391	3101

● 운송 해운 이삿짐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4786	6502

● 컨설팅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리 앤 리	725	5008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17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환전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 기타

스폰지	7095	4771
-----	------	------



PONDOK INDAH GLOBAL SCHOOL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국 크리스천 커리큘럼)

Together With

Junior Achievement®

(JA Worldwide Business Program)

자녀를 성공적인
전문경영자로 키우세요

71-222-000 으로 전화하셔서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2007. 11. 19 부터 12. 19 까지
발전기금 무료 : 플래그 그룹 + 유치원 / 특별 할인 : 초등학교, 중등학교
성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

지구 최후의 생존자,
인류 최후의 전쟁,
이제 그는 전설이 된다!



나는 전설이다
I Am Legend

전인류가 멸망한 가까운 미래, 오직 과학자 로버트 네빌(윌 스미스)만이 살아남는다.

텅 비어버린 거리, 어쩌면 지구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일지 모를 네빌은 매일같이 라디오 방송을 송신하며 또 다른 생존자를 찾는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인가를 찾아낸 네빌. 지구에 살아남은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무엇가는 네빌의 목숨을 위협하고 이제 네빌은 그에 맞선 인류 최후의 거대한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 그를 위해, 어딘가 살아있을지 모를 인류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 그는 전설이 된다!

헤어스프레이 Hairspray



전 세계를 매혹시킨 통~ 큰 그녀, '트레이시'

볼티모어 십대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코니 콜린스 쇼'. TV 댄스쇼에 출연해 최고의 댄싱퀸인 '미스 헤어스프레이'가 되는 것이 꿈인 슈퍼 헤비급 몸매의 '트레이시(니키 블론스키)'는 한껏 부풀린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 유쾌! 상쾌! 통쾌한 성격을 잃지 않는다. 어느 날,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기 위한 '코니 콜린스 쇼'의 공개 오디션이 열리자, 트레이시는 짹짹 S라인 미녀들이 판치는 댄스쇼에서 그녀가 주눅들까 걱정하는 엄마 '에드나(존 트라볼타)'를 뒤로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당당히 오디션에 참가한다.

친구 '시워드(엘리아 켈리)'와 '페니(아만다 바인즈)'의 도움으로 슈퍼 헤비급 몸매를 자유 자재로 움직이는 수준급 댄스를 선보인 '트레이시'는 드디어 '코니 콜린스 쇼'에 입성한다. 그러나 볼티모어 TV 방송국 매니저이자 전 미스 볼티모어로 아름다운 외모가 곧 권력임을 강조하는 엉뚱한 악녀 '벨마(미셸 파이프)'와 그녀의 딸인 백치미 공주병 '엠버(브리타니 스노우)'에게 끔찍한 몸매에 쏘다리인 '트레이시'는 눈엣가시이다. 그녀는 온갖 방해 공작을 벌이는 '벨마'와 '엠버' 모녀에 맞서 볼티모어 최고의 댄싱퀸을 뽑는 '미스 헤어스프레이' 선발 대회에 참가하는데.... 천방지축 슈퍼걸 '트레이시'는 과연, 꽃미남 꽃미녀들의 틈바구니에서 '미스 헤어스프레이'가 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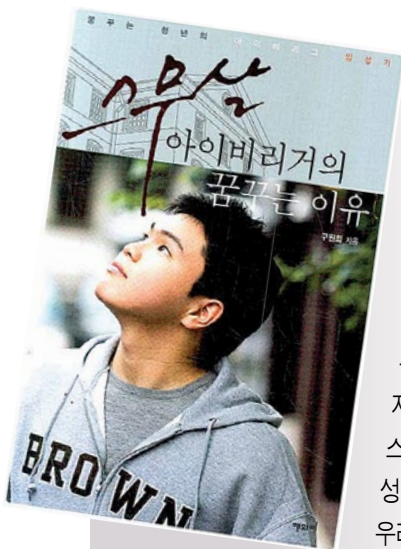
스무살 아이비리거의 꿈꾸는 이유

저자 구원회 | 출판사 해와비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도 최고의 학부로 평가받는 브라운대학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이비리그에 입성한 그에게 하나의 꿈이었던 아이비리그 입성은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다시 한 번 자신이 달려가야 할 목표를 가다듬으며 이 책을 썼다.

말이 늦어 어머니의 걱정거리였던 아이가 말을 배우고 글을 쓰게 되면서, 책벌레 소년이 된다.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이다, 조기교육이다 하는 열풍과 상관없이, 평범한 일반 가정의 자상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난 원

회의 이야기는 한국의 모든 부모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그러나 가장 정확한 공부의 왕도'를 독자들에게 제시해 준다. 부모님이 모범으로 가르쳐주신 '꾸준한 성실함'의 습관,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통한 적성 계발은 드디어 열매를 맺어 저자는 한국과 학영재학교 제1회 입학생으로 입학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졸업한 저자는 스무살! 드디어 아이비리거의 꿈을 이루게 된다. 오늘도 브라운대학교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의 꿈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학업의 동기와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정말로 공부하는 이유와 방법의 맛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성적을 위한 공부,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는 '가짜공부'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가짜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진짜공부'에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청소년들에게 조언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가면서 꿈을 향해 전진하는 공부, 그게 바로 '진짜공부'라고 말하는 스무살 청년 구원회! 우리는 그의 책을 통해, 단순한 학습법이 아니라 지성과 인성, 그리고 영성을 조화롭게 갖춰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풋풋하고 아름다운 한 청년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만의 특별한 학업 체험담과 학습방법을 만나게 된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가면서도 꿈을 향해 전진하는 공부, 바로 '진짜공부'를 할 줄 아는 청년, 그만의 진짜공부비법을 소개한다.



대단한 책 - 죽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은 책들에 대한 기록

저자 요네하라 마리 | 역자 이연숙 | 출판사 마음산책

《대단한 책》은 요네하라 마리가 죽기 전까지 읽고 사유한 책들에 대한 기록을 전해주는 책이다. 뛰어난 러시아어 통시통역사이자 작가, 그리고 책으로 사는 '독서 생활인'이었던 저자는 책을 평생의 반려자로 삼았다. 저자는 다독하는 데다가 20분 만에 몇 백 쪽의 책을 읽어 낼 정도로 속독에 능하였으며, 왕성한 호기심으로 다양한 책들을 독파하였다.

이 책은 요네하라 마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간지에 연재했던 「독서일기」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각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던 장단편의 「서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총 390권의 책을 다루고 있는데, 「독서일기」에는 당시의 이슈에 대한 시평을 곁들인 47편의 글을, 「서평」에는 저자가 읽은 책들에 대한 139편의 글을 담았다.





왜 버스는 세대씩 몰려다닐까 - 일상을 지배하는 머피의 법칙의 비밀

저자 리처드 로빈슨 | 역자 신현승 | 출판사 한겨레출판사

'머피의 법칙'에 대한 인지과학 연구서 <왜 버스는 세대씩 몰려다닐까>.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건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주변 모든 곳에서 이러한 머피의 법칙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안 오던 버스가 한꺼번에 세 대씩 오는 경우를 그저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영국의 저명한 심리 과학자인 리처드 로빈슨은 먼 옛날에는 머피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인간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뇌가 그만큼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서툴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부정확한 기억력, 금방 적응해버리는 후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부의 시계 등이 머피의 법칙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즐거운 나의 집

저자 공지영 | 출판사 푸른숲

엄마 같은 딸, 딸 같은 엄마. 그들이 펼치는 맥주처럼 알싸한 가족 이야기.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이혼한 친엄마와 사는 18세 당찬 소녀 위녕이 들려주는 좌충우돌 엉뚱 발랄 유쾌한 가족 이야기와, 가족이기에 감내해야 했던 상처, 사랑이기에 거부할 수 없었던 고통을 작가 특유의 문체로 치유하고 있다.

이 소설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의 현재를 이야기하는 작가, 공지영이 발견한 가족, 그 평범함과 특별함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까지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선사한 작가가 이제는 웃음으로 우리 문학의 새로운 성취를 이루어냈다. 이 소설은 철없는 엄마와 너무 일찍 철든 딸, 그들의 가족 스케치로, 평범하지만 알고 보면 특별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가족이다. 내 소설과 내 마음이 모두 사랑이기를 바라고 살면 설사 실수투성이 삶일지라도 소중해진다. 그 소중한 마음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 집, '즐거운 나의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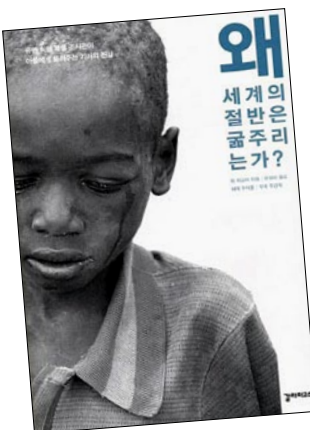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저자 장 지글러 | 역자 유영미 | 출판사 갈라파고스

전 세계 기아의 실태와 배후 요인들을 대화형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

부족한 것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음식점에서는 손만 조금 댄 반찬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밥 한끼,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가 기아의 실태와 그 배후의 원인들을 아들과 나눈 대화 형식으로 설명한다. 전쟁과 정치적 무질서로 인해 구호 조치가 무색해지는 비참한 현실, 소는 배불리 먹으면서 사람은 굶은 모습된 현실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12월 행사 및 공지 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변경 안내

2007.11.19부터 우리 대사관의 홈페이지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 <http://www.mofat.go.kr/indonesia>

변경후 : <http://idn.mofat.go.kr>

자카르타 홍수피해 주의

1. 우기에 접어들어 수일간 단속적으로 내린 비로 말미암아 현재 보고르지역 저수지가 벌써 위험수위에 달했습니다.
2. 보고르에서 수문을 개방하는 경우 자카르타 저지대는 비가 오지 않아도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상습 침수지역 거주 교민들께서는 보고르 수문 개방 동향에 유의하시고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리비아 입국관련 안내

1. 리비아 정부는 2007.11.11(일)부로 리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여권의 아랍어 번역문을 여권에 기재(또는 부착)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는 아랍어 번역문을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우리 대사관에서도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상기 아랍어 번역문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소요기간 1주일 가량)

덴기열 발생 증가 가능성 관련 유의 당부

1. 최근 우기로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에는 아열대 전염병인 덴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카르타에서만 29,772명의 덴기열환자가 발생, 이중 8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 덴기열은 오지 등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와는 달리 일반 도시에서도 서식하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며, 덴기열 모기는 밤보다는 낮에 주로(특히, 이른 아침부터 오전 10시정도까지) 활동하므로 낮에도 물리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상은 3~6일의 잠복기간 후에 나타나며, 대개 독감과 비슷하여 열이 나고 몸이 쑤시거나 머리가 아픕니다. 피부의 발진 또는 출혈이나 혈

변 등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직 예방백신이나 적절한 치료법이 없으니,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거나 여행중인 우리 국민들은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셔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인니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1. 한-인니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이 07.11.16 발효하였다.

○ 2000.11.28 서명된 동 조약은 한국측이 2001.11 비준하였고 인니측이 2007.10.23 비준하였음을 2007.11.16 한국측에 통보해 오에 따라 동 통보일로부터 발효하게 된 것이다.

2. 동 조약(전문 및 본문 21개조)은 양국의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

인도네시아 한인회

법무·투자·지적재산권 상담 안내(무료)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 (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58,
Jakarta Selatan

전화: (021) 529-60643

휴대폰: 0816-1911245

상담방법: 면담 혹은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 개인법무, 투자, 지적재산권,

파산, 가사 등 법적인 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관제사)

방 국가에 도피하여 있는 범죄자를 기소 또는 형 집행의 목적으로 요청 상대국에 인도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동 조약의 체결을 통해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사문제에 있어서 한-인니 양국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4.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총 28개국(발효 21건, 미발효 7건)과 범 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있다.

화산폭발 가능성 대비 신변안전 주의

1.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활화산은 총 13개로,

① 3급경계령이 내려진 화산은 Sopotan, Karangetan(북부 술라웨시), Kelud(동부자와), Anak Krakatau(반뜰)이며,

② 2급경계령이 내려진 화산은 Papandayan(서부자와), Ibu, Dukono, Gamkonora(북부말루꾸), Talang, Kerinci(서부수마트라), Lokon(북부 술라웨시), Semeru, Bromo(동부자와)입니다.

2. 해당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다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거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소급적용 관련

1.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인니측의 발효지연으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되어 있으나, 인니 일선 세관 등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2.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대사관 경제팀(김형태 참사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 Tel 520-1915, Fax 525-4159

3. 아울러, 당관은 인니 재무부와 함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오며, 상세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 지정

1. 외교통상부는 해외위난지역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권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방문 또는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여권의 사용제한 등)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 바, 8.7자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국가 및 사유

○ 이라크 : 전쟁중

○ 소말리아 : 내전중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및 납치 빈발

2. 상기 관련,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 상세사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 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 ◆진주 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 첨부)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3 No.55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720-3246
HP. 0816-873-176

대한항공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7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항공편명	구 간	출발 / 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 인천	21:55 / 06:45 +1	매일
KE627	인천 > 자카르타	15:20 / 20:30	매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0:50 / 08:40	화,목,금
KE629	서울 > 덴파사르	17:30 / 23:30	월,수,목
KE630	덴파사르 > 서울	03:40 / 11:30	월
KE629	서울 > 덴파사르	20:10 / 02:20 +1	일

2. 기간: 2007년 10월 28일 ~

3. 전화번호: 021) 521-2175 / 2176 / 2177 / 2180

4. Fax 번호: 021) 521-2184 / 521-2179

5. E-mail: hyunmelee@koreanair.com(한국어)
stuty@koreanair.com(영어/인니어)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79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Garuda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 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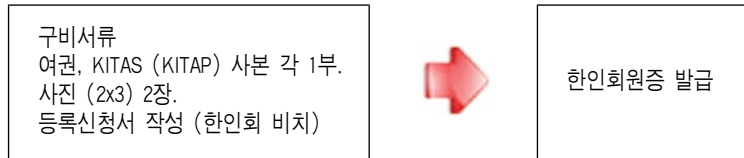
www.garuda-indonesia.com

한인회원 등록 안내

1.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결의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2. 등록절차



3. 회비납부

- 개인 USD 12 / 년
- 가족 USD 20 / 년

4. 회원혜택

- 의료 협정 체결 병원(국내)에서 진료 시 의료혜택(표-1 참조)
- 한인회 지정 가맹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추후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공지)
- 한인회 도서관 이용, 무료 대출
- 무료 법률상담실 이용

의료혜택 병원

번호	의료기관	전화/팩스	의료혜택사항	지참서류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361-5114 팩스: 02)313-9028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여권
2	중앙대학교 의료원 (용산, 필동)	전화: 02)748-9900 팩스: 02)798-474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20% 할인 (부속 필동병원에서 시행) - 선택진료시 선택진료료의 30% 할인 (입원에 한함)	한인회원증
3	한국원자력연구소	전화: 02)970-1622 팩스: 02)970-129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4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전화: 02)2639-5021 팩스: 02)2676-0980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전화: 02)2650-2611 팩스: 02)2650-5051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한인회원증
6	경희의료원	전화: 02)958-9618~9 팩스: 958-960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여자: 유방, 자궁암검사 포함) - 팩스를 이용한 건강상담	한인회원증 진료의뢰서
7	서울 아산병원	전화: 02)3010-3114 팩스: 02)3010-3113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8	한양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병원	전화: 02)2290-9550~2 팩스: 02)2290-9567 ich@hmc.hanyang.ac.kr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불필요

국민건강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

- 국민건강수가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요양급여비용
- 일반수가 : 1) 행위료 : 국민건강수가의 2배 적용
2) 의약품, 진료재료 등 : 국민건강수가의 1.5배 적용
3) 일반수가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재외국민

한인회 등록 신청서 (남,녀)

일자 :

사진(2X3)	성 명	(한글)				
		(영문)				
	생 년 월 일					
한국	본 적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인도네시아	1	Tel.				
	2	Tel.				
회사명 및 주소	1	Tel.				
	2	Tel.				
입국일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비 자	(상용), (취업), (기타)	KIM' S	NO. :			
			유효기간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여권번호	유효기간
20 . . .					(서명)	

(증명사진 2매첨부)

Inter -Dental Brush

in the World





고객에 힘이 되는 - 「우리은행」

고객에는 큰 힘이 되고,
가장 사랑받고,
가족같이 편안한 은행



우리나라 1등은행